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74호
2025년 07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열린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34차 평의원회의에 참석한 동문들과 서울에서 온 유홍림 모교 총장, 김종섭 총동창회장, 귀빈으로 초청된 미네소타대 사생크 프리아 부총장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규모도 내용도 역대급 ... 제34차 평의원회의 성황리 개최

황효숙 동문, 제18대 서울대 미주동창회장 취임 동창회관 건립 추진하면 총동창회서 200만불 지원

차기 회장에 박상근 동문 선출

지난 6월 20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열린 제34차 미주 서울대 동창회 평의원 회의는 '미네소타 프로젝트' 시행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더하며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번 회의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김영오 공대 학장 등 주요 보직 교수들과 김종섭 한국 총동창회장 등 본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2박 3일간 미주 동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미네소타대학교 측에서도 사생크 프리아 부총장과 리사 루이스 동창회장이 참석해, 서울대와의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성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네소타 출신의 황효숙 동문(사대 65)이 이상강 동문(의대 70)으로부터 회장직을 넘겨받으며, 앞으로 2년간 미주 동창회를 이끌게 됐다.

차기 회장으로는 박상근 동문(법대 75, 전 워싱턴 D.C. 회장)이 공식 선출됐다.

행사의 첫날은 '미네소타 프로젝트 위크숍'으로 문을 열었다. 유홍림 총장은 "서울대는 세계 대학 순위 31위에 오를 만큼 글로벌 명문으로 성장했다"며, "그 근간에는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시작된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미 전역에서 69명의 평의원이 참석했으며, 이 중 22명이 남가주에서 참가해 단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가족 동반 참가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참석 인원은 142명에 달해, 그 열기를 실감케 했다.

회의 이튿날에는 신·구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황효숙 신임 회장은 이상강 전임 회장으로부터 동창회기를 넘겨받으며,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정신을 이어받아 동창회를 더욱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단체로 이끌겠다"고 힘



황효숙 18대 미주동창회장(왼쪽)이 제17대 이상강 회장으로부터 미주동창회기를 넘겨 받고 있다.

주어 말했다.

황 회장은 박현아 동문(공대 88)을 사무총장으로, 김영석 동문(공대 73)을 감사로 지명해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았으며,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는 한홍택(공대 60), 박현아 두 동문을 새롭게 위촉했다.

김종섭 한국 총동창회장은 회의에서 "미주 동창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립된 회관이 필요하다"며, 한국 총동창회와 서울대 발전기금이 각각 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매칭펀드를 제안했다. 미주 동창회가 이미 조성한 100만 달러에 더해 총 300만 달러로 회관 마련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이에 참석한 평의원들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논의를 이어가자며 적극 공감했다.

미주동창회 주소가 바뀝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651-308-0796 | Email: Contact@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자랑스러운 동창회, Servant 정신으로 최선 다할 것”

취임사



황효숙
미주동창회 제18대 회장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동문 여러분,

2025년 7월1일 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 서울대 미주동창회장의 중임을 맡은 18대 회장 황효숙입니다.

1991년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출범한지 3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미주동창회는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와 헌신,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속에 꾸준

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미주동창회는 심각한 지속 가능 문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문님들의 고령화와 낮은 관심, AI와 Chat GPT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동문들의 적은 참여로 인해 “지속가능”의 문제는 미주동창회의 사활에 관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디지털세계에 살고 있는 관악세대를 비롯한 젊은 동문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열린 제34차 평의원회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워크숍’에서 열정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된 Minnesota Project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하며 과감한 도전을 하겠습니다. 미주동창회보에 “젊은 동문들을 위한 코너”를 설치하여 젊은 동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리는 “서울대인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동창회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2003년 경에 시작된 Century Foundation Fund는 역대 회장님과 동문님들의 적

극적인 참여로 백만불이 넘는 fund가 되었습니다. Fund Management 와 Risk Management의 전문가를 Committee Member로 초청하여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관리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주동창회의 장학프로그램을 키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미주동창회 Scholars Program을 SNU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ISP)과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미주지역 한인 커뮤니티와 모교간의 교류가 더욱 확대 강화되는 가장 효율적인 장학의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미주동창회의 보고인 29개 지부와외의 적극적인 소통을 함으로 지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부와 지부간의 소통을 장려하고 각 지부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동창회보에 알리겠습니다. 각 지부의 활성화는 미주동창회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입니다.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교와 긴밀히 소통 교류함으로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서울대와 미네소타대학간의 국제협

력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모교의 총동창회와도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습니다.

서울대인들은 많이 주어진 사랑입니다. Brain Network Seminar, SNU Seminar, Entrepreneurship Network을 서울대 밖의 한인사회, 나아가 미국사회에도 개방하여 서울대 동문들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인으로서 누린 특권을 사회에 환원하는 Nobles Oblige 정신을 다하는 Community Outreach Project를 시행하여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동문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젊은 동문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Servant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창회 운영에 도움 주신 동문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임사



이상강 (의대 70)
미주동창회 제 17대 회장

친애하는 서울대 미주 동문님들, 제가 17대 미주동창회장으로 취임한 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임기를 마치고 18대 황효숙 회장님께 업무를 인계합니다.

우선 지난 2년 미주동창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동문님들, 종신이사에 새로 가입하시

거나 업그레이드를 통해 동창회 재정을 든든히 하는데 도움을 주신 이사님들, 장학금이나 회보 광고로 도움을 주신 동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부 운영만으로도 바쁘실텐데 미주동창회보 제작과 미주동창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힘을 보태주신 미주 각 지부 동창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2년 전 서울대 미주동창회장이란 막중한 책무를 맡으면서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계획했으나 실제로 이룬 것은 미미합니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서부로 중부로 동부로 직접 차를 몰고 1만 마일을 넘게 달리며 여러 지역의 동문들을 만나 뵙고 허심탄화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미시간, 보스턴, 애틀랜타 등 가는 곳마다 적게는 10~20명, 많게는 30~40명의 지역 동문들이 멀리서 찾아온 친구 대하듯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어디에 살든 우리

는 서울대인 한 가족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각 지부 동창회의 활동 현황과 어려운 점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각 지부 동창회의 장학사업과 젊은 동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마다 수천 달러의 지원금을 줄 수 있었던 것도 미주동창회장으로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전임 회장 집행부에서 하 시려고 했던 미주 동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은 큰 보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거의 6000명이 넘는 동문님들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했습니다.

17대 집행부에서 IT 국장을 맡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열정을 쏟아주신 나용화(가정대 79) 동문께 특별히 고마움을 전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제가 미주동창회장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추진했으나 진척을 보지 못하다 IBM에서 은퇴한 나용화 동문을 만나 마무리할 수 있

었습니다.

구축된 미주 동문 데이터베이스를 18대 황효숙 회장님 집행부에 넘기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18대 황효숙 회장님과 그 임원들이 미주동창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을 굳게 믿고 진심으로 성원합니다. 미주 동문님들도 18대 미주동창회에 아낌 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여러분은 서울대 역사의 주인공”

유홍림 서울대 총장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제34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주신 이상강 회장님과 황효숙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2년 만에 미네소타에서 우리 동문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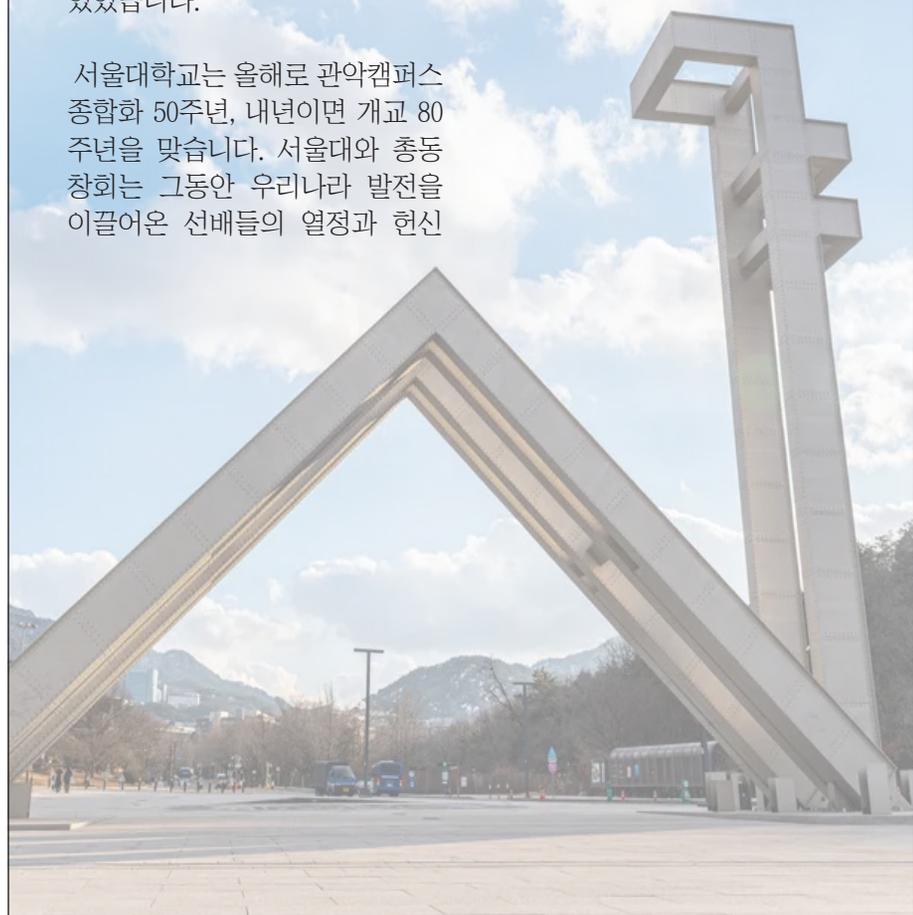
친애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작년 모교 홈커밍데이에 미주 동창회에서 40여 분이 방문해 주셨고, 여러 동문께서 모교 발전을 위한 성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모교를 찾아주셨던 동문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서울대는 앞으로 더 우리 동문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미주 동창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 기념하고, 모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역사의 주인공이신 우리 동문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미주 동문들의 화합과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명예롭게 이임하시는 이상강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시는 황효숙 신임 회장님께도 축하를 전합니다. 앞으로 미주동창회를 잘 이끌어주셔서 더 큰 번영을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미주 동문 여러분!
탁월한 역량과 열정으로 우리 민족과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고 계신 동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국땅에서 펼쳐지는 동문들의 활약은 우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또한 동문들의 명성과 성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올해로 관악캠퍼스 종합화 50주년, 내년이면 개교 80주년을 맞습니다. 서울대와 총동창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온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



축사

“서울대 정신·우정 나누는 자리 되길”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이상강 미주동창회 회장님, 황효숙 차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미주 전역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평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제34차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올해 이 뜻깊은 자리를 미네소타 세인트폴 호텔에서, 그것도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 70주년을 기념하며 갖게 되어 더욱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미네소타는 서울대학교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곳입니다. 1954년부터 10여 년 동안 진행된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전쟁의 상흔 속에 있던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이정표였습니다.

서울대 교수 226명이 이곳 미네소타대학에서 연수했고, 70여 명의 미네소타 교수들이 직접 서울대에서 강의하며 학문과 제도의 뿌리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특히 의학, 농학, 공학, 교육학 등 서울대의 여러 단과대학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기반을 닦고, 오늘날 세계적 명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님께서 직접 함께 하셨다는 사실도 이 뜻깊은 70주년을 더욱 빛내주고 있습니다. 유 총장님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미주동창회는 해외 동창회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특히 이번 평의원회는 서울대와 미네소타의 인연을 되새기고, 미래 100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서울대인의 자긍심과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워크숍, 공로패 및 감사패 시상식, 작은 음악회, 그리고 축하 만찬까지,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이상강 회장님, 황효숙 차기 회장님, 그리고 준비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과 세계를 잇는 교육과 연구의

가치를 되새기고, 서울대 동문들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로패를 받으시는 여러 동문 여러분께도 깊은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봉사와 헌신이야말로 서울대와 동문 사회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총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유익하고 보람 있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원의 식사’와 같은 재학생 후원, 글로벌 사회공헌단과의 협력 사업, 그리고 동문 할인 혜택 및 ‘Mall SNUA’ 운영 등은 모두 동문 간의 유대와 사회 기여를 동시에 실천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삶과 서울대의 미래를 함께 잇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울대의 위대한 전통과, 그 중심에서 계신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부디 이번 미네소타 평의원회가 동문 간의 우정과 서울대 정신을 한층 더 깊게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의원 회의 하이라이트는 미네소타 프로젝트 워크숍

유홍림 총장, 첫날 이례적 참석 “역사적 사업, 정신 계승” 강조
송창원 · 이재욱 · 김태환 · 김영오 · 이경식 · 신학철 동문은 연사로

미네소타 평의원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첫날 진행된 미네소타 프로젝트 워크숍이었다.

강경철(공대 04)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워크숍은 송창원(미네소타대), 이재욱(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태환(의대 52), 김영오(서울대 공대 학장), 이경식(서울대 문화예술원장), 신학철(LG화학 CEO) 동문 등이 연사로 나서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강 교수는 워크숍에 앞서 “요즘 젊은 세대는 동문회 활동에 관심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미네소타에 유학와서 본 선배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큰 성취를 이루셨음에도 늘 겸손하고 후배를 진심으로 아끼며 도와주시는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행사 준비와 사회까지 맡게 됐다”며 감회 어린 소회를 전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유홍림 총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서울대 역사는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운을 뗀 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했으며,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국가 재건을 위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작된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강조

했다. 유 총장은 “서울대는 앞으로 미네소타 정신을 계승해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미네소타 프로젝트 워크숍’에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사생크 프리야 부총장을 포함해 보직 교수들도 다수 참가했다. 유홍림 모교 총장과 황효숙 18대 회장, 강경철 워크숍 조직위원장 등이 미네소타 대학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시작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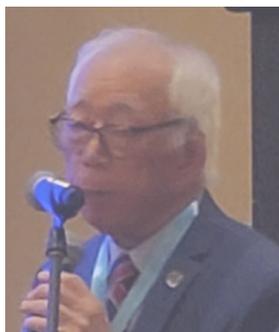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송창원(문리대 53·사진) 교수는 “1954년 9월부터 시작된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원래 ‘국립서울대학교 협동프로젝트(SNU Cooperative Project)’로 명명됐다”고 소개했다. 초기에는 농업과 공학, 의학이 중점 대상이었으나 후반기에는 수의학, 간호학, 보건학, 행정학 등으로 확대돼 총 7개 학문분야에서 서울대 교수들이 연수를 받았다.

총연수자는 모두 226명으로 이들은 3개월에서 최대 4년간 미네소타 대학에서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더불어 59명의 미네소타 대학 교수들이 직접 서울대학을 찾아와 지도와 자문을 해줬다.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천만 달러에 달하며 전액 미국 정부가 부담했다.

송 교수는 당시 미국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PPT로 정리해 보여주며 간호대 이귀향 교수가 실습복을 전달받는 모습, 의대 교수들이 심장 수술을 참관하는 장면 등 귀중한 기록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송 교수는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 대학조직, 행정, 인사, 교육 운영체계의 개선
- * 파괴된 시설의 복구 및 노후시설의 현대화
- * 한국의학의 비약적인 발전
- * 1970년대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



기반 구축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창설을 통한 개발도상국가와의 교류 확대

* 송창원 교수는...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 나이를 3살이나 속여 소위로 임관했다. 고성 전투때 폭탄 파편이 척추 옆에 깊이 박혀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했다. 이 파편은 지금도 그의 몸에 남아있어, 공항 검색대를 지날 때마다 금속 탐지기에 반응해 검문을 받곤한다.

의병 제대 후 서울대에 입학해 화학을 전공한 그는 국비 장학생으로 아이오와 대학에 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방사선 생화학을 전공한 그는 미네소타대학에서 은퇴했다. 지금까지 300여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미네소타 서울대 커뮤니티의 든든한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

‘받는 대학’에서 ‘주는 대학’으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 단과대는 공대다. 전임교원 80% 이상이 미네소타대에 연수 또는 유학을 했으며 프로젝트 기간 동안 총 57명의 미네소타대 자문관들이 서울대에 파견돼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들 자문관들은 교육 및 연구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제안했다. 한 자문관은 “실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수업 환경은 학생이나 교수진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설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대는 서울대에 건물 신축과 함께 실험장비, 교육 기자재 등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이러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성과는 서울대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어졌다. 서울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잡았으며 최근에는 세계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31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했다. 현재 전 세계 89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선진 대한민국’을 배우고 있다.

서울대는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정신을 이어받아 ‘글로벌 SNU 공헌단’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서울대가 이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이재욱

(서울대 국제협력본부 본부장)

들을 지원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올해는 동문 기업들과 협력해 ▲우즈베키스탄(영원 무역) ▲인도네시아(삼익 약기) ▲우간다 ▲페루 ▲네팔 등지에 학생 봉사단원들을 파견한다.

특히 의과대학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모잠비크 등과 함께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서울 프로젝트)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협력과 기여를 실천하고 있다.

서울대는 70년 전 암울했던 시절, 미국 정부와 미네소타 대학으로부터 받은 귀중한 도움을 결코 잊지 않고 이제는 그 은혜를 개발도상국에 돌려주는(pay it forward) ‘글로벌 공헌대학’으로서의 사명을 실천해 가고 있다.

“글로벌, 변화 그리고 변화를 기회로 삼는 리더십”

신학철(LG 화학 CEO) 동문, 제 34차 평의원회의 기조연설



신학철(공대 75)

내 인생은 서울대와 3M, 미네소타, 그리고 LG로 요약할 수 있겠다.

나는 3M에서 시작해 필리핀 지사장을 거쳐 미네소타 본사에서만 33년을 근무했다. 세계 무대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러한 여정이 오늘날의 내 자신을 만든 토대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꼽으라면 ‘글로벌’, ‘변

화’ 그리고 ‘리더십’이다.

비즈니스로 세계를 누비다 보면 경험에서 얻는 게 참 많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이다. 두 번째는 변화. 나는 리더로서 늘 변화를 강조해 왔다. 그리고 그 변화를 기회로 삼는 리더십, 그것이 세 번째다.

나는 LG화학 CEO로 부임하기 전까지, 3M의 전성기를 함께하며 큰 성과를 이뤘다. 회장까지 해볼 생각도 있었다. (웃음) LG화학으로 옮겨 18조 원이던 시가 총액을 140조까지 끌어올렸으니 LG에서도 기여를 많이했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많은 곳에서 기여해왔지만, 딱 한 군데 미처 못한 곳이 있었다. 바로 모교인 서울대학교이다. 최근 유희림 총장님의 권유로 서울대 이사로 합류하게 됐다. 이제라도 모교에 힘을 보탤 수 있

게 돼 무척 영광이다.

처음 LG화학에 부임했을 당시, 나는 당장 조직을 ‘ 뜯어고치자 ’ 는 말 대신 3개월간 회사의 역량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 결과,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 여러분은 LG가 얼마나 강한 회사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 많은 직원들이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나는 글로벌 감각과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우리의 결정은 너무 수직적이다. 그렇게 해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 ”

또한 나는 영어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지금도 한국인이 해외에서 영어를 잘 못해 손해 보는 일이 너무 많다. 제대로 해야 한다. 기업이 세계로 나가려면 언

어부터 갖춰야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ESG가 세계를 휩쓸었지만, 지금은 AI를 모르면 도태되는 시대가 됐다. 관세, 기후변화, 미중 갈등, 전쟁 같은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톰 피터스의 ‘ 혼돈을 넘어 번영으로 (Thriving on Chaos) ’ 는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조직이 되기 위한 지침서로 일독을 권한다.

리더는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혼돈의 시대에도 성공하는 기업은 많다. 결국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그 조직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 리더의 생각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리더의 사고방식은 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젊은 동문들에 도움 주는 든든한 공동체 만들 것”

당선 소감



박상근(법대 75)

미주동창회 제19대(차기) 회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미주 동문 여러분,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네소타 세인트폴에서 개최된 제34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에서 차기 제19대 미주 동창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고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 귀한 책임을 맡겨주신 모든 평의원 여러분과 미주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평의원회의에서 한국전쟁 직후인 약 70년 전에 미네소타대학교가 미국의 대외원조 대행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고등교육 분야를 원조한 사업인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연혁과 역사를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은 제게 크나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2020년 중반부터 2022년 말까지 워싱턴DC 지부장으로 섬기며,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동문 간의 유대를 유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교류와 소통을 모색하며 지부의 활동을 이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미주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에 취임한 황효숙 동창회장님 이하 현 회장단을 도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동문회의 현실을 이해하며, 각 지역의 동문회와 미주 동창회의 긴밀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유서 깊은 단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는 동문들의 노령화와 더불어 활동 인구의 점진적 감소입니다. 둘째는 젊은 동문들의 참여 저조, 셋째는 안정적 재정 기반의 미비입니다. 저는 황효숙 회장님과 현 회장단을 도우며 이러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세대 간의 연결과 리더십 전환 촉진

젊은 동문들이 자연스럽게 동창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리더십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과 커리어 네트워킹을 체계화하는 사업이 필수로 여겨집니다. 선배 동문들과의 교류

를 통해 동문회가 단순한 친목의 장이 아니라 인생의 변곡점에서 도움을 주는 든든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번 평의원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해주신 미네소타 지부 출신이신 LG화학의 신학철대표님의 인생스토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젊은 동문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불러넣는 동창회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2.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통 강화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정기 모임 등 디지털 기반의 참여 채널을 다양화하는 사업도 세대간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동창회보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각 지역 지부의 활동을 미주동창회 차원에서 찾고 홍보하고 지원하며, 동창회가 부흥하는 지역의 프로그램 소개 등을 통해 지역 간 교류도 온라인을 통해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구축

회비 시스템의 간소화 및 온라인 납부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동문 기업이나 개인 기부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것 또한 위의 두 가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장학기금과 동창회 재정 자립 모금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며 여기에 젊은 동문들의 유입과 참여

를 유도하고 독려하고자 합니다.

4. 미주 전체를 아우르는 포용적 리더십

미주 전역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 직종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모든 동문들이 동등하게 소속감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5. 모교와의 동반협력 강화

이미 실행되고 있는 선발 장학생들의 모교 하계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연속성이 있도록 확장해 나가고 모교를 빛낸 인사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하며 미주 동창회원들의 정기적 모교 방문을 독려하여 모교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주 지역 동문들의 목소리를 모교에 전달하고 또한 모교가 미주동창회에 원하는 바를 경청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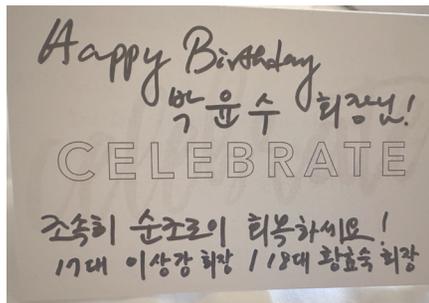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북미주의 29개지부와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새로운 세대에게도 자랑스럽게 이어지도록, 여러분에게도 자랑스럽게 이어지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격려,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더 나은 동창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수 초대 회장에 즉석 생신카드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미주 동창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을 지낸 박윤수(문리대 48) 박사가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더했다. 올해 초 낙상으로 현재 지팡이에 의지해 생활 중인 박 회장은 비행기 탑승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회장은 모교 교환교수(물리학)로 나가 있을 때조차 평의원 회의를 빠짐없이 참석할 만큼 미주 동창회의 산 증인이다. 지금도 옷깃에 서울대 동창회 배지를 달고 다닐 정도로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노명호 제 16대 회장은 “(미네소타로) 떠나기 며칠 전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다”며 “참석한 동문들께 안부를 전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참석 동문들은 박 회장의 97세 생신(7월 4일)을 축하하는 생신카드를 즉석에서 마련해, 노 선배의 건강과 쾌



유를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박 회장은 조완규 전 총장과 대학 동기. 조 총장 재임시 “윤수야, 너 미국 돌아가면 전 미주를 아우르는 총동창회를 만들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단 1년만에 이를 실현해 내는 열정의 리더이기도 하다. 현재 박 회장 부부는 남가주 실비치의 은퇴마을인 ‘레저월드’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한턱’ 쓴 이상강 회장, 임기 마무리

이상강 이임회장은 평의원 회의 말미에 “지난 2년동안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회장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감사의 뜻으로 저녁 식사 후 술 한잔 크게 대접하겠으니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회장은 약속대로 만찬 후 로비에서 ‘쫄파티’를 열었다. 30여명의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밤 늦도록 웃음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이 회장의 지난 2년간의 헌신과 성과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다. 그는 역대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직접 자동차를 몰고 각 지부를 순회하며 동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젊은 동문들을 격려하며 ‘금일봉’도 전달하는 세심함을 보여줬다. 이 회장은 동문 부부로 잘 알려



이상강 17대 회장과 김경숙 17대 사무총장 부부.

져 있다. 부인 김경숙(생과대 70) 동문은 사무총장으로서 동창회 운영을 뒷받침하며 살림을 알뜰하게 챙겼다.

차기 회장 플로어 출마설에 한때 긴장감 워싱턴 DC 박상근 동문 만장일치 추대

차기 회장(2027~2029)으로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박상근(법대 75, 워싱턴 D.C.) 동문의 무투표 당선에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회의 직전 갑자기 ‘플로어에서 또다른 후보가 출마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며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구체적인 인물까지 거론되면서 혹시 경선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황효숙 동문의 회장 취임에 자극받은 여성 동문이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얘기가 비교적 설득력있게 퍼졌다.

그러나 정작 차기회장 선출 절차에 들어가자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소문은 한낱 해프닝으로 끝났다. 결국 박상근 동문은 단독 후보로 추대돼 평의원 전원의 박수로 제 19대 회장에 선출됐다.

앞서 제 16대 회장을 지낸 노명호(공대 61) 동문은 “저도 단독후보로 나왔는데, 그때는 그래도 투표를 해야 한다며 투표를 강행했었다”며 “그 결과 딱 한



박상근 19대 차기 회장(왼쪽)과 유홍림 총장.

분이 내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회상했다. 이어 “누가 반대했는지 제가 안다. 그 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수하기 바란다”고 말해 한바탕 폭소가 터져나왔다.

노 전 회장의 유쾌한 일화 덕분이었을까, 박상근 후보는 별도의 투표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팔등신’ 동문 자매 참석에 이목 집중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동문 자매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이주희(음대 89, 워싱턴 D.C.) 동문과 이주현(미대 92, 캔사스 시티) 동문이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를 졸업한 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피츠버그의 명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언니 이주희 동문은 미국의 유명 회계법인에서 부사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여성이다. 인생 3모작에서 1모작은 서울대, 2모작은 카네기 멜론, 이어 3모작은 동창회라고 부를 정도로 동창회 일에 헌신적이다. 이번 차기회장에 선출된 박상근 동문이 워싱턴 D.C. 동창회장을 맡았을 당시 총무로 활동하며 보좌했다. 탕고의 매력에 빠져 아르헨티나로 ‘탱고 유학’까지 다녀오는 열정도 보여줬다.

동생 이주현 동문도 언니 못지 않다. 결혼 후 캔사스 시티에 정착한 그는 지난해 하트랜드 동창회장에 취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캔사스 한인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류 확산에 앞장서며 여러 문화행사를



이주희(오른쪽), 이주현 동문 자매.

기획해왔다. 대표적으로 미주리대에서 ‘KC 아리랑’ 행사를 주관, 1천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주류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두 자매의 지성과 열정, 그리고 외모까지 더해지며 회의장 분위기를 환하게 밝히는 존재가 됐다.

유홍림 총장, LA서 동문 격려 ... 동문들 10만 달러 연례기부 약정도

유홍림 총장은 평의원회의 직후인 6월 24일 LA로 이동해, 채규황(법대 69) 남가주 총동창회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 동문들을 격려했다. 이어 어바인에서는 이병준(상대 53), 한홍택(공대 60), 박민식(수의대 65), 한귀희(미대 68) 동문 등 주요 기부자들을 만나 서울대가 추진 중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홍수웅(의대 59) · 홍성신(약대 61) 동문 부부는 매년 1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약정을 밝히,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동창회의 목적과 역할에 관해 다시 생각보는 계기가 됐다”



문성인(공대 88)
미네소타 지부 회장

저는 미네소타 지부장으로서 지난 6월 20일에서 22일까지 세인트폴 호텔에서 열린 제 34차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하는 평의원 회의였고 이전의 경우는 동창회보를 통해서만 접해서 평의원 회의의 규모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유희림 총장님과 김종섭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해 다수의 관계자분들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금요일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워크숍 3부 파트에서는 미네소타 대학의 동창회 회장님과 관계자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저는 동창회의 목적과 역할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의 회칙을 보면 다음 3가지가 목적으로 나옵니다.

a. 서울대학교 동문 간의 상호 친목을 증진한다.

b.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한다.

c. 모교의 발전을 위해 동문을 대신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기부를 제공한다.

미네소타 대학 동창회의 홈페이지에는 다음 3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a. Connecting alumni

b. Supporting students

c. Strengthening the U of M

기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회장님들과 동문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미주동창회도 상당한 발전을 해왔고 재정적 자립을 위해 Century foundation fund를 창설해서 3백만불을 목표로 모금을 해오시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부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한가지가 지속적인 젊은 동문들의 참여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18

대 황효숙 회장님의 지속가능한 동문회라는 목표가 왜 생겼는지를 대답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선배님들이 이루어놓으신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지속적으로 젊은 동문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동문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꾸준히 변화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미네소타 지부 출신인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님의 Key note 연설중에 이것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Leadership ceiling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어떤 조직이던 지 leader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보다 더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00년 이상 존재하고 있는 회사가 전체의 1%도 안되는데 이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거기에 알맞게 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경험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동창회나 다른 모든 조직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주동창회가 향후 50년 100년 이상 지속가능하려면 시대에 맞게 잘 변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재정적 자립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줄 근본적인 힘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그리고 미주동창회가 유대적인 협동관계이기는 하지만 재정적인 연계성은 비교적 약해 보였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대학들이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는 foundation들이 있고 이곳에서 모든 자금을 관리 운용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동창회에 운영자금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동창회도 이러한 미국식 모델에서 좋은 점은 좀 더 많이 흡수해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주동창회 홈페이지에서 2016년에 발행된 266호 회보를 보니 미주총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사실이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거의 10년 전에도 이미 비슷한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화에 속도를 붙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평의원회의는 그간 몰랐던 동문회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게된 계기였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최고등급인 다이아몬드 이사(10만 달러 이상) 조상근(왼쪽부터) 동문과 골드이사(1만 달러 이상)인 이상강, 윤상래 동문, 김종섭 모교 총동창회장과 하기환 동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포즈를 취한 서치원(왼쪽) 김상찬 동문 부부.

종신이사 역대 최다 참석 ‘눈길’

10만 달러 후원 뉴욕 조상근 동문도 자리 빛내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역대 가장 많은 종신이사들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최고등급인 다이아몬드 이사(10만 달러 이상) 중엔 조상근(법대 69, 뉴욕) 동문이 참석했다.

고광선(공대 57, 워싱턴 주) 동문도 다이아몬드 이사로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몇해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골드이사(1만 달러 이상) 참석 동문은 ▲이만택(의대 52, 필라델피아) ▲김창수(의대 54, 코네티컷) ▲노명호(공대 61, 남가주) ▲윤상래(수의대 62, 필라델피아) ▲하기환(공대 66, 남가주) ▲서치원(공대

69, 남가주) ▲이상강(의대 70, 하트랜드) ▲김경숙(생과대 70, 하트랜드) 등이었다.

실버이사(5천달러 이상) 참석자는 ▲황효숙(사대 65, 미네소타) ▲이종묘(간호대 69, 남가주) 동문이 포함됐다.

종신이사(3천달러 이상)는 ▲김해암(의대 52, 뉴욕) ▲이재진(문리대 55, 남가주) ▲김권식(공대 61, 미네소타) ▲김상찬(문리대 65, 남가주) ▲최경선(농생대 65, 북가주) ▲박용필(문리대 66, 남가주) ▲박평일(농생대 69, 워싱턴 D.C.) ▲신응남(농생대 70, 뉴욕) ▲제영혜(생과대 71, 남가주)

“대륙 횡단 여행 중 평의원 회의 참가”

남가주 서치원 · 김상찬 동문 부부, 미네소타 입성 화제

미네소타 평의원 회의를 계기로 대륙을 횡단한 두 동문 부부가 화제다. 주인공은 남가주에 거주하는 김상찬(문리대 65) 동문과 서치원(공대 69) 동문 부부다. 이들은 지난 6월 6일 캘리포니아 LA를 출발해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유한 후 9일 만에 미국의 북동단, 캐나다 접경에 위치한 메인주의 마다와스카에 도착했다. 마다와스카는 북미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두 동문 부부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 진정한 ‘로드 트립’이었다.

이후 이들은 유타와 콜로라도, 아이오와, 뉴욕, 메인 등지를 경유하며 미국 중부로 다시 방향을 틀었고, 출발 15일째 되는 날인 6월 20일, 마침내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열린 평의원 회의에 도착,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여정 중에는 여유롭게 골프를 즐기며 휴식을 취

하기도 했다.

평의원 회의 종료 후에도 이들의 여행은 계속됐다. 두 동문 부부는 키스톤과 블랙힐스 포레스트 등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들을 차례로 방문한 뒤, 7월 초 다시 LA로 돌아오며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륙횡단을 함께한 차량은 서치원 동문이 이번 여행을 위해 새로 구입한 GMC 유콘 디날리(Yukon Denali) 모델. 넉넉한 공간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이 SUV는 이들의 긴 여정을 든든히 지탱해줬다.

두 동문은 “이번 여행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며 “이 여정의 이야기를 동창회보에 연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삶의 여유와 도전, 그리고 동문간의 우정을 되새기는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

뉴욕 메트 한국어 투어 개척 김창화 동문, 32년 봉사 마무리

김창화(미대 65) 동문이 무려 35년에 걸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의 자원봉사를 마무리했다. 김창화 동문은 35년의 자원봉사 기간 중 32년을 한국어 공식 투어 가이드로 활동했다. 1993년 김 동문이 개설한 한국어 투어 프로그램은 초기만 해도 찾는 사람이 적었지만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오면서 지금은 매주 3일 열리는 정규 투어로 자리잡았고 매회 15~40명의 관람객이 참여할 만큼 활발한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김창화 동문은 지난 5월29일 자신의 마지막 투어를 서울대 뉴욕 골든클럽 동문들과 함께 했다.



김창화 동문(왼쪽 사진)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한국어 투어 가이드 32년 자원봉사를 마무리하면서 뉴욕 서울대 동문들만을 위한 특별 투어를 준비했다. 이날 투어에 참석한 동문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45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하 메트)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뉴욕 동문 및 배우자를 포함한 24명이 한자리에 모여, 예술과 문명의 발자취를 따라 깊이 있는 문화의 여정을 함께했다.

이날 투어는 메트 박물관의 자원봉사자로 35년, 한국어 공식 투어 가이드로 32년 간 활동해온 김창화 동문이 봉사 활동 마감을 앞두고 서울대 동문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 투어로, 뉴욕의 여러 동문들의 참여로 성사되었다.

김 동문은 “동문 모임에는 별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뉴욕 동문회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뒤통에 알게 되면서, 그동안 정성을 쏟아온 한국어 투어 활동을 동문들에게도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다.

김 동문의 해설로 진행된 이날 투어는 박물관 관람 이상의 진정한 문화 체험의 장으로 빛났다. 김 동문은 ‘손의 표현’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각기 다른 시대와 문명의 예술작품들 속에서 손을 읽어보며 문화와 시대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독창적인 구성으로 투어를 진행했다. 원래는 한 시간 남짓의 여정으로 계획되었지만, 동문들의 열정적인 호응과 필요한 휴식을 고려해 천천히 진행한 덕분에 투어는 거의 두 시간 걸렸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끝까지 집중해 경청하며 투어를 완주했다. 김 동문은 “두 시간 가까이 목소리를 높이며 설명했지

마지막 특별 손님은 뉴욕 골든클럽 동문들 1993년 시작해 주 3회 정규 투어로 키워내 앞으로는 6·25 Foundation 활동 전념 계획

만, 저도 지치는 줄 몰랐다”고 회고했다. “흔히 메트 뮤지엄의 규모가 미식축구장 20배 크기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고대에서 현대까지, 세계 곳곳을 아우르는 예술작품 가운데 아홉 점을 골라 ‘손’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동문은 고대 이집트관에서 시작하여 기원전 2000년경의 “봉헌물을 이고 가는 여성상”, 서기 10세기 인도 미술의 “Parvati” 조각상, Old Masters Gallery에서 다비드의 “Death of Socrates”(1787), 카라바지의 “Denial of St. Peter”(1610), “The Fortune Teller”(들라투르, 1630년대), 미국미술관에서는 앨라스카 Yup’ik 부족의 “Dance Mask”, 중세기 미술관에서 초기 기독교 미술의 “Virgin and Child in Majesty”, 19세기 미술로 로맹의 “Burghers of Calais”, 그리고 20세기 초반 미국 화가 벤튼의 벽화 “America Today”까지 시대와 문화를 넘나들며 손의 표현을 통해 인류의 정서와 미학을 전달하는 깊이 있는 해설을 전달했다.

“장시간 서 있고 걷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심지어 청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까지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제가 메트에서 투어를 한 32년의 보람된 봉사가 동문님들과의 정겹고 따뜻했던 시간으로 마감하게 된 것은 각별한 기쁨입니다”라고 김 동문은 덧붙였다.

김창화 동문은 1990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 1993년부터는 단독으로 메트 박물관 역사상 여섯 번째 외국어로서 한국어 공식 투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어 투어 수요는 미미했지만, 서울대 미대 선배 최일단 동문을 비롯한 지인들의 격려와 함께 꾸준히 투어를 이어갔다. 그 결과 현재는 매주 화·목·금요일 오후 12시 15분(계절에 따라 변동) 정규 투어로 자리 잡았다.

김 동문은 “이제는 후배 동료들에게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35년간의 봉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며 “한국어 투어의 성장은 한국인들의 문화적 자긍심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창화 동문은 6월 박물관 봉사 활동

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한 후에는 남편과 함께 꾸려온 6.25 Foundation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부부는 2018년에 비영리단체인 6.25 Foundation을 설립해,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군 병사들을 기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고향 초등학교 도서관에 기부함으로써 한미 우호와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오고 있다.

특히 매년 6월 25일에는 ‘Liberty Walk’라는 걷기 행사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모금된 기금은 재단의 교육 및 전사자 추모 사업에만 전액 쓰이며,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뜻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 또한, Liberty Trail이라는 한미 공동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두 나라 학생들이 한국전쟁의 역사와 희생의 의미를 직접 배우고, 그 결과물을 전시함으로써 세대 간의 역사적 기억을 이어가고 있다.

김 동문은 “이렇게 문화의 향유를 만끽할 때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의 뿌리를 생각하게 된다”며 “전쟁 중 생명을 바친 젊은 전사자들을 기리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웠던 시기에 도움을 준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되갚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서울대 동문 여러분이 함께 이 여정을 이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625Foundation.org 및 TheLibertyWalk.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재=유규환(사대 60)**



김창화 동문은 이날 ‘손의 표현’이라는 주제로 시대별 9개 작품을 선택해 투어를 진행했다. 사진은 다비드의 작품 ‘소크라테스의 죽음’. 오른쪽 사진은 김창화 동문의 설명을 듣고 있는 뉴욕 동문들.

“글쓰기 좋아하고 많이 읽다보니 책 5권 내게 됐네요”

고사성어 풀어주는 공대 교수 최규용(공대 72) 동문

공학 전공자로 공대 교수로 일하고 있으면서 문학가로 여러 권을 출간해 유명한 최규용(공대72, Kyu Yong Choi) 동문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최근에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생활 가이드(A road to the joy learning)’를 펴내기도 했다.

최규용 동문은 1972년 모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했고 공릉동 캠퍼스에서 공부했는데 1976년 BS, 1978년 MS 학위를 마쳤다. 1979년 8월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화공과 대학원에 입학했고 1983년 12월 박사 학위를 마친 후 1984년 3월 1일 부터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University of Maryland의 화공과에 조교수로 academic career를 시작했다. 1986년 NSF로 부터 Presidential Young Investigator Award를 받았다.

그의 전공은 고분자 중합반응공학(Polymer Reaction Engineering)으로 고분자의 산업적 생산기술 개발에 필요한 중합반응 동력학과 반응기의 설계, 제어, 최적화에 관련된 연구 문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polyolefin 제조와 Ziegler-Natta 촉매 및 metallocene 촉매 반응을 연구했다. Dow Chemical, ExxonMobil, Solvay, Rhone-Poulenc, LG Chemical, Rhodia, Honeywell, Eastman Chemical, DuPont 등 미국, 유럽, 남미, 한국의 많은 고분자 관련 화학회사들과 산학 협동을 통해 다양한 polymer 생산 공정의 문제를 연구해왔다. 지난 10년 간은 특히 polyethylene과 polypropylene이 촉매 내부에서 생성되어 성장하는 molecular/nano-scale 현상을 연구한 바 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중신회원이다.

일반적인 공학 연구자로 남기에는 그의 재능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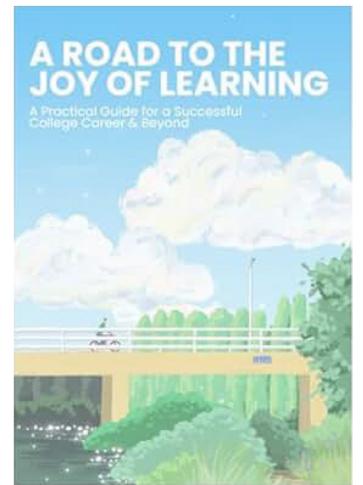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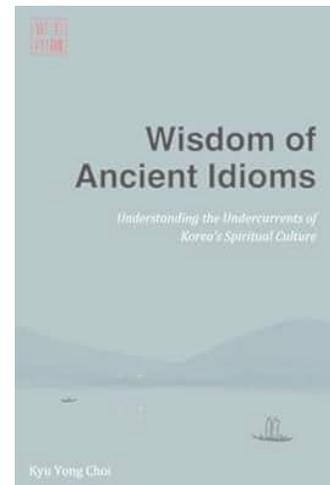
“공학자이지만 화학이 다루는 많은 현상이 인간 또는 자연의 현상과 매우 유사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에서 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동포사회의 관심사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았고 워싱턴 한국일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주제로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성김안드레아 한국학교 교장으로 봉사하면서 한인 2세의 뿌리 교육에 관여하게 되었고 미국 성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 역사 등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할 기회를 가졌다. 또 2016년 한국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와 나’라는 이민 역사 교재를 저술하여 미국 내의 한국 학교에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한국학교 교장직을 통해 새로운 한국학교 운영 방법 개발 등을 통해 워싱턴 지역의 동포사회와 한국학교 커뮤니티에 기여했다. 덕분에 2018년에는 재외동포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워싱턴 한국일보의 요청으로 2022-2023년 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고사성어’라는 컬럼을 매주 1회씩 한국일보에 연재했고, 2023년 한국일보에 연재된 65편의 고사성어에 20편을 추가하여 총 85편의 고사성



2018년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Kent & Poole Senior Teaching Award를 수상하면서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 그가 쓴 ‘Wisdom of Ancient Idioms’, ‘A road to the Joy of learning’ 책 표지.



칠순 기념해 고사성어 85편 실은 책 출간 한국학교 교장하며 이민역사 교재도 저술 ‘진품 명품’ 소설로 워싱턴문인회 신인상 수상

어를 실은 단행본 ‘워싱턴 공학도의 고사성어’라는 책을 70세 기념으로 한국에서 제작하여 비매품 한정판을 발행했다. 기존의 고사성어를 소개하는 다른 책과는 매우 다른 형식으로 고사성어의 현대적 의미를 독자와 생각하는 내용으로 썼다.

또 다른 저술로, 2024년 8월 ‘A road to the Joy of learning’이라는 제목의 책을 Amazon을 통해 발간했다. 이 책은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40년간의 교육 경험을 살려 지은 책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조교수, 고등학교 12학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내용이 실려있다. 기존의 대학 생활 안내서가 아니라 40년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겪은 많은 일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교수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학생과 교수의 관계를 통해 대학 생활을 충실하고 보람있게 지내 졸업 후의 커리어를 잘 개척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 등 동양의 사상가,教育家, 철학자들이 교육에 관해 가르친 내용을 현대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2025년에는 ‘Wisdom of Ancient Idioms’이라는 제목으로 앞서 발간한 한국어판 고사성어 책을 수정, 증보하여 Amazon을 통해 발간했다. 영어판을 발간하게 된 것은 한국의 전통 정신문화를 고사성어를 통해 이해하고 K-문화의 원류를 non-Korean speaking reader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동포 2세와 3세, 미국인 사위, 미국인 며느리, 미국인 직장 동료, 지인 등이 읽었을 때 한국 정신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동기다. 최 동문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만든 책이다.

워싱턴 지역에 살면서 많은 한인 문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가 많았고 문인회 회원의 권유로 2024년 가을 ‘진품 명품’이라는 소설로 2024년 워싱턴 문인회 신인상(당선)을 수상하면서 71세의 나이에 신인으로 등단하게 되었다. 현재도 틈틈이 활발하게 다양한 주제, 특히 과학과 공학과 연계된 내용으로 수필을 쓰고 있는데 이를 모아 수필집을 낼 계획이다.

“원래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사서삼경과 다른 동양의 고전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등 지난 20여 년간 많은 책을 읽어왔습니다. 또한 2006년 한국에 안식년으로 몇 달 KAIST에 가 있을 때 서예 선생님을 만나 서예에 입문하였는데 서예를 하려면 한문을 잘 알아야 했으므로 한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문학적인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최 동문은 “쓰는 것은 산문으로서 수필의 형식이 대부분인데 평소 생각하고 느낀 것을 머릿속에만 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여 다른 사람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학적, 공학적 논문만 쓰던 것에서 탈피하게 되었다”면서 “이제 은퇴를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화학학을 중심으로 인문학과 연결된 읽기 쉽고 재미있는 글로, 일반 대중을 위한 수필을 앞으로 많이 쓰겠다”고 최근 글쓰기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요즘에는 전공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면 글을 통하여 동포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려고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조선의 명화’라는 화시조(畫時調)집의 저술을 마치고 현재 한국에서 책을 제작

중인데 역시 비매품으로 한정판을 만들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조선시대의 명화에 진정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나눌 계획이다.

서울대 동문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 50세 까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여 일가견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둘째, 50-60세에는 전공 분야의 리더로서 recognize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65세 이후에는 더 많은 것을 이루려기 보다는 생애에 했던 일을 잘 정리하고, 전공과 관련되어 알게 된 사람 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자신이 이루었던 것을 사회-동포사회, 미국 주류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제 전공과 관련 없어 보이는 여러가지 활동을 하니, 예를 들어, 서예, 인문학적 글 쓰기, 저술활동 등 ‘재주가 좋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20년 이상 시간을 아껴 공부하고 연마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재주가 아니라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며 “세상 모든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며, 꾸준한 시간을 들여야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최 동문은 1980년대에 메릴랜드 대학 조교수로 시작하여 대학에서 일에 집중하다 보니 서울대 동창회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다가 1990년대 초에 서울대 워싱턴 지부 산하 골프동호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성김안드레아 한국학교 교장으로 봉사하는 10년 동안 여력이 없어 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사로서 뒤에서 후원했다. 최근에 워싱턴 지부에 젊은 동문이 주축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 주립 칼리지파크 캠퍼스 화학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Professor,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이메일 kychoiumd@gmail.com

장병희 편집위원



지난 6월 14일 호프만 에스테이트의 힐데힐 골프코스에서 열린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푸른 그린 위, 빛나는 노익장 ... 청춘의 샷, 노년을 가르다

지난 6월 14일, 세월의 무게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무게만큼 깊어진 연륜의 향기를 풍기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60년대와 70년대, 혈기 왕성한 젊음과 용기 하나로 미지의 땅 미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군 서울대학교 시카고 동창회 회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1982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1984년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며 시카고 한인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린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창회를 넘어 한국인의 끈기와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이들의 발자취는 숫자로도 선명히 드러난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265명의 대학생에게 31만 9,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고, 올해 역시 10명의 대학생에게 각 3,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월 열리는 골든 클럽 모임에는 100명 가까운 회원들이 모여 점심을 함께하고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통해 지혜를 나누며 교류한다. 이처럼 왕성한 활동 뒤에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터전에서의 성공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숨쉬고 있다.

그리고 그 열정의 한 조각이 매년 봄, 가을 호프만 에스테이트의 힐데일 골프코스에서 펼쳐지는 골프대회에서 활짝 피어난다. 여느 아마추어 골프대회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민 1세대들의 삶의 철학과 기개가 오롯이 담겨 있다.

유월의 일리노이주 하늘은 푸르고 깨끗했다. 드넓게 펼쳐진 푸른 페어웨이는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고, 상쾌한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6월 골프대회 성료 50년대부터 2000년대 학번까지 고루 참여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 돈독한 동문애 다져

공기는 코끝을 스쳤다. 티오프 시각인 12시가 한참 전임에도 불구하고, 연습 그린 위에는 70대, 80대의 노익장들이 퍼팅 연습에 몰두하고 칩샷을 가다듬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그들의 손놀림 하나하나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승부욕이 느껴졌다. 허리를 숙여 홀 컵까지의 거리를 가늠하고, 신중하게 클럽을 고르는 모습에서 그들이 젊은 날 미국 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개척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80대의 노익장 선배들이 카메라를 들고 직접 사진을 찍으며 숏순수범하는 모습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젊은 후배들도 이러한 선배들의 열정에 감복하여 즐겁게 대회를 진행하는 데 힘을 보탤다.

세대 아우르는 열정의 스윙

티 박스에 선 동문들의 모습은 사뭇 대조적이었다. 70대, 80대의 노익장들은 “마음을 비우고 즐겁게 라운딩하자”는 다짐과 함께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패기가 번뜩였다. 한편, 40대, 50대 젊은 후배들은 패기 넘치는 눈빛으로 선배들

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젊은 시절의 승부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듯, 드라이브 비거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기 싫다는 듯 온몸의 힘을 실어 스윙한다. 때로는 힘껏 휘두른 드라이브 샷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 대신 여유로운 미소가 감돈다. 이내 우드샷으로 투운을 노리고, 그린 근처에서는 홀에 바짝 붙이기 위해 섬세한 웨지샷을 날린다.

퍼팅 또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신중하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꼼꼼히 살피고, 그린의 잔디결까지 고려하며 홀 컵을 향해 공을 보낸다. 70대 후반, 심지어 8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90대 스코어를 꾸준히 유지하는 이들의 모습은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들의 견고한 스윙과 흔들림 없는 집중력은 단순히 골프 실력을 넘어, 지난 세월 동안 삶의 역경을 이겨내며 다져온 강인한 정신력을 대변하는 듯했다.

골프를 통해 이들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젊은 시절의 뜨거웠던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고 있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와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깊어진 삶의 지혜와 여유가 배어 있었다.

만남과 화합의 장

이번 대회는 50년대 학번부터 2000년대 학번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총 7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세대 간의 격차는 골프라는 공통의 관심사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선배들의 노련함과 후배들의 패기가 어우러져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카메라를 든 채 동반자들의 멋진 샷을 담고,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모습은 끈끈한 동문애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라운딩을 마치고 이어진 뒤풀이 장소는 한인 소유의 샴버그의 사쿠라였다. 왕성한 식욕으로 즐겁게 식사를 하는 그들의 모습은 노익장 골퍼들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활기 넘쳤다. 사쿠라 사장님은 손수 테이블을 다니며 동문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살피고 담소를 나누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골프장에서의 뜨거운 승부욕은 온데간데없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지난 세월을 함께 해온 동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값비싼 음식보다도 값진 만찬이 되었으리라.

대회 결과, 남자 부문에서는 이준수 동문(공대 76)이 그로스 1위를 차지했고, 신순천 동문(자연대 대학원 89)이 넷 1위를 기록했다. 강동조 동문(법대 01)이 장타상을, 김훈태 동문(사회대 84)이 근접상을 수상하며 영광을 안았다.

정성일 동창회장(공대 86)은 모든 동문들이 늘 건강을 유지하여 가을 대회에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서울대학교 시카고 동창회 골프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선다. 그것은 젊음을 바쳐 이민의 삶을 개척한 이들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변치 않는 동문애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다.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그들의 청춘은 앞으로도 시카고 한인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귀감이 될 것이다. 그들의 드라이브 샷은 여전히 멀리 뻗어나가고, 그들의 삶 또한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궤적을 그려 나갈 것이다.

글=이준수(공대 76) 동문



라운딩을 마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문들. 오른쪽 사진은 정성일 회장이 남자 부문에서 그로스 1위를 차지한 이준수 동문(오른쪽)에게 트로피를 전달하는 모습.



“주차 요금기 고장? 이 기회에 새로운 앱 배우지 뭐?”

뉴욕 동창회 골든클럽

80여명 함께 한 피크닉

뉴욕 동창회 골든클럽 회원과 가족 80여명은 지난 6월 12일 Alpine Pavilion에 모여 즐거운 피크닉을 가졌다. 청명한 날씨와 쾌적한 기온 덕분에 야외 활동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었다.

주차장 요금 정산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시작부터 시간이 지체되고 동문들이 불편을 겪는 작은 해프닝이 있었지만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서울대인의 DNA를 품고 있는 동문들이었던 만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동문들은 새로운 모바일 앱 사용법을 배우며 불편한 시간도 유익한 IT 강좌 시간으로 승화시켰다.

또한, 집행부의 장소 공지 오류로 잠시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모인 동문들은 함께 맛있는 점심도 시락을 나누며 즐거운 식사를 마쳤다.

이어진 여흥 시간에는 새로운 게임과 빙고 게임을 통해 회원들의 웃음꽃



뉴욕 동창회 골든클럽 회원과 가족 80여명이 지난 6월12일 알파인 파빌리온에서 아우회를 즐기고 있다.

이 끊이지 않았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귀한 시간을 마무리하며, 다음 피크닉을 Alpine Pavilion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주차 요금이 무료인 수요일을 고려하는 것이 순조로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피크닉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함께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그간 여러차례 초청에도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던 정준영(문리대 67) 동문 부부가 마침내 참석했고 한국에서 온 성덕수(상대 67) 동문의 깜짝 방문이 있었다.

또한, 젊은 피인 박수형(법대 99) 동문이 참석해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이

창길(자연대 85) 동문이 찬조 출연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함께 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간 시간이었다.

글=김정필(공대 71) 뉴욕 동창회장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정민 동문, 줌 북토크에 미주 동문 초대



버지니아에서 임상상담사, 관계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정민(농가정 87, Monica Lee · 사진)이 오랜만에 줌으로

읽으며 ‘이 책으로 북클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책을 함께 읽고 강의를 듣고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미워하던 나의 모습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였을 뿐이고, 나는 온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 토크를 개최하면서 관심있는 미주 동문들을 초대했다.

한정민 동문은 “트라우마라고 하면 9.11 테러나 지진,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건이 먼저 떠오를 수 있지만 일상에서 겪는 상실, 학대, 어린시절의 방임, 인종차별, 억압 등도 모두 트라우마에 포함된다”며 “자기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하거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소개했다.

한 동문은 “2년 전 오프라 윈프리와 소아정신과 의사인 Dr. Perry의 ‘당신에게 무슨일이 있었나요?’ (원제: What happen to you?)”를

줌 북 토크는 ▶미국: 7/17 ~ 8/14 (목 - 5주 동안) 동부 7:30 - 9:30pm / 서부 4:30-6:30pm ▶한국: 7/18 ~ 8/15 (금 - 5주 동안) 오전 8:30 - 10:30 열리며 참가 비용은 자료포함 미국 거주자는 100달러(한국 및 외국 거주자 - 10만원)다. 목회자 및 선교사 가정은 50% 장학금을 지급한다. 참여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될 경우 이메일 (RestoreAndGrow@gmail.com)을 보내면 장학금도 지급한다.

▶등록: <https://forms.gle/1vfEexmkaLPfKUap6>
▶책소개 영상: https://youtu.be/971j3pzEmto?si=vAOwxI_aKHd935V1



휴스턴 지부 동문들이 지난 5월15일 대학 진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장애우 포함 학생 12명에게 장학금

휴스턴 지부

서울대 미주동창회 휴스턴 지부는 지난 5월 15일 휴스턴의 서울가든 대연회실에서 제 35회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가졌다.

지난 3월초부터 최인숙 장학위원장을 비롯한 장학위원들이 장학생 선발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이날 장애우 한명을 포함한 12명의 대학 진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호성 동창회 이사장은 이날 행사를 위해 한국 출장 중임에도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며 선발된 장학생들을 향해 “여러분의 노력과 가능성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다”며 “오늘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축

사를 했다. 김정한 휴스턴 지부 회장은 강한 지성인이 되어달라고 축사를 하였고, 최인숙 장학위원장은 대학에 진학하는 한인 2세 인재들을 위해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난 35년 동안 계속해서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선배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올해는 특별히 초대된 연방법무부 소속 Morris Moon 변호사가 선발된 장학생들을 축하하였으며, 장학금 수혜자 대표로 김서현 학생은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과거의 노력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 주신 선물로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한국을 널리 알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승표 (문리대 57 · 시카고 지부) 동문= 6월16일 별세.

▶이해영(공대 56 · 남가주 지부)= 6월21일 별세. 남가주 공대 회장 역임.

“심회진 동창회장님 지난 2년 수고 많으셨어요”

필라델피아 지부

50명 동문·배우자 총회 참석
새 회장에 김영석(음대 74) 동문

필라델피아 지부는 지난 6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Kori Restaurant 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50명의 동문들과 동문 배우자들이 모여 오랜만에 인사도 나누고 덕담을 나누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정례적인 사업보고와 재정보고 후에,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김영석(음대 74) 동문이 필라델피아 동문들의 마음을 모아 2년 동안 수고해준 심회진(음대 90) 전임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영석 신임 회장은 이날 “2025년 세계 3대 여름 음악 축제에 관해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Mansfield University 에서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쌓아온 지식과 많은 여행을 통해 얻어온 경험을 토대로 약 45분 간 이어진 김신임 회장의 특강은 흥미롭고도 유익해 모두를 집중해서 경청했다. 이날 특강은 앞으로 유럽에서 열리는 여름 축제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실제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가득했다.



지난 6월7일 열린 정기총회에 참석한 필라델피아 동문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했다.

특강 후에는 푸짐한 저녁 식사를 나누었고, 끝나기 전 마지막 순서로 김성지(음대 92) 총무가 이끈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다. 유쾌한 넌센스 퀴즈와 선물로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멀리 델라웨어에서 참석한 이문환(상대 78) 동문이 기증한 담채 밥솥은 심회진 회장에게 돌아갔다. 그동안 업데이트한 주소록과 기념품을 나누며 정기총회는 막을 내렸고, 동문들은 다음에는 더 풍성한 모임이 되기를 기원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지난 2년간 수고한 심회진 회장(왼쪽 사진)과 신임 회장에 선임된 김영석 동문.

오락가락 비 내려도 “즐거워!” ... 장학사업 날로 번창



뉴잉글랜드 지부 동문들이 지난 6월14일 정기 총회를 겸한 야유회를 열고 단체 기념 촬영을 했다.

연례 야유회 및 장학생 9명 선정 수여식 개최
70여 명 참석, 신임 회장에 원덕수 동문 인준

뉴잉글랜드 지부

뉴잉글랜드 지부 동창회(회장 최진민, 공대 71)는 지난 6월14일 보스턴 서쪽 외곽에 위치한 뉴턴 어번데일 파크(Auburndale Cove, Newton)에서 지난 6월 14일 정기 총회를 열고 연례 야유회와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야유회에는 1950년대 학번부터 2010년 이후 학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동문과 가족 및 장학생과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업무 보고 시간에는 6월12일 이사회에서 검열/승인된 원덕수(건축 72) 동문의 차기 회장 인준과 개정 회칙의 인준을 만장 일치로 승인하였다. 장학 기금

으로는 고 이재신 동문님 등이 기부한 기존 10만불에 올해 유규호 장학 기금(임재수교수/유규호 동문) 5만불이 추가되어 현재 15만불이 확보되었으며, 장학위원회의 활발한 모금 활동으로 올해에도 후원금 2만4000불을 확보해 지원자 47명 중 장학생 9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짧은 수상소감에서 장학금의 고마움과 함께 금전적인 것을 넘어 수상자들의 자라아고, 좀더 긍정적으로 꿈과 목표를 향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힘을 다잡는 힘이 되었음을 말해 주었다. 이어진 점심 식사 시간에는 오락가락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동문들은 오랫동안 만나 반가운 담소를 나누며, 야외 한



뉴잉글랜드 지부 동문들이 선발된 장학생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장학 기금이 15만불에 달하며 올해 후원금도 2만4000불을 확보했다.

식뷔페를 즐겼다. 점심식사후에는 단체사진 촬영과 그동안 동창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규진(약대 60) 감사, 백문성(문리65) 편집 간사, 정해원(자연 02) 관악회장에 대한 공로/감사장 증정이 있었고, 이어서 처음 나왔거나 좀 특별한 동문 몇분에 대한 작은 상품권 전달이 있었다. 한편, 젊은 동문모임인 관악회도 지

난 6월 7일 12시부터 3시까지 Christian Herter Park에서 야유회를 가졌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인 날씨에도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여해 김밥과 떡볶이로 점심을 먹으면서 보스턴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이명진 변호사가 참여해 요즘 부쩍 힘들어진 비자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취재= 백문성(문리대65)**

이기준 · 정인환 · 차승철 · 원동길 선배님 “구순 축하합니다”

남가주 법대 월례모임

지난 5월 31일 법대동창회에서는 채규황(법대 69) 남가주 총동창회장 자택에서 법대 월례모임을 가졌다. 법대 동문 40여명이 모인 이날, 54학번 이기준(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정인환, 원동길, 차승철, 김생철 동문의 구순을 축하했다. 왼쪽 사진은 이날 참석한 구순 선배님들. 왼쪽부터 이기준, 정인환, 차승철 원동길 동문.



동문 가족 100여명 화창한 봄날 즐기며 피크닉



지난 5월31일 부세 우즈에서 열린 야유회에 참석한 시카고 동문들. 이날 야유회에는 109명의 동문, 가족이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카고 지부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가는 오월의 마지막 날, 엘크 그로브의 아름다운 Busse Woods (Ned Brown Preserve) 숲 속 Grove #32 아래, 서울대학교 시카고 동창회의 웃음꽃이 만개했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북서부에 위치한 약 3,558에이커에 달하는 Busse Woods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자연 공간이자, 시카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휴식처이다.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진 5월 31일, 쾌청한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더없이 화창한 날씨는 동문들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했다.

“올해는 왠지 모르게 5월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정성일 동창회장(공대 86)의 따뜻한 인사처럼, 109명의 동문들이 구글 폼을 통해 야유회 참석을 신청하며 실행 임원들의 준비에 힘을 실어주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넉넉히 준비된 150개의 도시락은 동문들의 넉넉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른 아침부터 야유회 장소를 찾은 정

109명 동문 · 가족, 율동 · 게임하며 즐거운 시간

성일 회장과 이동균 차기 회장(공대 75)은 주변 정리에 솔선수범하며 동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매년 야유회 때마다 훌륭한 음향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김호범 동문(상대 69)은 어김없이 든든한 삼손 음향시스템 XP-1000과 발전기를 준비하여 흥겨운 야유회의 밑바탕을 마련했다.

봉윤식 총무(사회대 96)는 작년과는 다른 장소에 흑시나 당황할 동문들을 위해 Busse Woods 곳곳에 세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입구에서는 이태호 재무(공대 87)가 밝은 미소로 동창회비와 기부금을 접수하며 동문들을 맞이했다.

김훈태 부회장(사회대 84)의 재치 있는 사회로 시작된 야유회는 한의일 동문(공대 62)의 우렁찬 선창에 맞춰 다 함께 교가를 제창하며 모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확인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담소를 나누며 그간의 회포를 풀었고, 정성껏 준비된 도

시락으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를 마친 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찍은 단체 사진 속에 함께 흘러온 세월의 흔적과 변함없는 우정을 담았다.

오후의 여흥 시간은 황찬주 동문(인문대 84)의 열정적인 주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설운도의 “다함께 차차차”를 배웠다. 우선 가사를 연습하고 율동을 배웠다. 황 동문의 색시한 동작 요구에 모든 동문이 흔쾌히 따랐다. 서울대 동문은 춤과 노래에 서툰다는 황 동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겼다.

기억력을 자랑하는 동문들 덕분에 황 동문이 야심차게 준비한 홈페이지 가사를 굳이 볼 필요는 없는 셈이 되어 즐거움이 더했다. 영원한 댄서 이영우 동문(문리대 66), 혜성같이 나타나 화려한 율동을 선보인 지옥희 동문(간호대 69)과 연경자 동문(약대 65)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이 즉석에서 율동팀을 결성하여 “다함께 차차차”의 흥을 더욱 고조시켰다.

원웨이 티켓의 감미로운 선율로 여흥의 아쉬운 마무리를 하려는 찰나, 김훈태 부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빙고 게임이 시작되었다. 지난번 야유회 때와 이프의 따끔한 훈계를 들었다는 너스레와 함께 고급스런 상품을 자랑한 김 부회장은 년센스 퀴즈로 분위기를 더욱 유쾌하게 만들었고, 이어진 빙고 게임은 동문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영섭(수의대 56), 이애자(약대 57), 허서룡(의대 60), 박정일(의대 61), 윤덕상(치대 62), 김영용(간호대 66), 이소희(간호대 68), 김학수(공대 70), 김명기(자연대 74), 이건홍(공대 75), 류민정(화학 98), 강동조(법대 01), 김정은(음대 04) 동문들이 야유회에 참석하거나 동창회비로 함께 하였다. 젊은 동문들은 적극적으로 진행과 정리를 도우며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행 임원들의 헌신적인 준비와 배우자들의 따뜻한 협조 덕분에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야유회는 웃음과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무리되었다.

글=이준수(공대 76) · 사진=홍청일(약대 57) 소진문(치대 58)

“매년 6월이면 동문들 만날 생각에 가슴 설레”

박평일 (농대 69)

나는 미국의 6월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매년 6월이 되면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서 만나게 될 동문들 생각에 가슴이 설레다.

내가 평의원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은 2003년 6월, 제 7대 오흥조 미주동창회장이 LA에서 개최했던 평의원회의였다. 나는 그 당시 워싱턴 DC 지역 서울대 동창회장인 이영목 회장을 보필하는 수석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어린 나이 축에 속한 나는, 밤늦은 시간 까지 갑론을박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창회 회의 분위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내심 그게 서울대 출신들의 특유한 기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모임에서 만난 선배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주고 받으며, 고향 옛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기 지기 시작해 갔다. 25년 넘게 미국문화와 한국문화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 1세, 한계인(Marginal Person)으로 살아온 나로선 생소한 경험이었다.

LA 평의원회에 참석하셨던 한국 총동창회 김재순 회장(상대출신으로 국회의장 역임)의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는 감동적인 명언설은 잠자고 있던 나



박평일 동문(맨 왼쪽)이 미시시피강을 배경으로 남가주에서 온 양수진, 제영혜, 이종묘, 채규황 동문과 반가운 한 컷을 찍었다.

의 서울대 출신 정체성을 일깨워주었다. 1971년 서울대 관악 캠퍼스 기공식 때 당시 학생대표 이희성 시인이 지어 헌정한 시, “여기 타오르는 빛의 성전”의 마지막 구절,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민족의 위대한 상속자

아 길이 빛날 서울 대학교
타오르는 빛의 성전 예 있으니
누가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이 구절에서 변형되어 회자되고 있는 말이다. 나는 한국의 개인 국민소득 2천 불 시대에 자유와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이

민 온 사람이다.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5대 군사대국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웅을 다투고 있다. 과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기적적인 발전의 길목길목, 고비고비 마다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 배지를 가슴에 단 서울대인들의 피와 땀, 지혜와 열정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익히 알고 있다.

맞는 말이다. 관악으로 상징되는 서울대는 해방 이후,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 뿐만 아니라, 과거였고, 현재이다.

올해 18대 미네소타 황효숙 회장이 ‘미네소타 프로젝트’ 라는 참신한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St. Paul 에서 평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예상을 초월한 숫자의 동문들이 참석한 성공적인 축제였다. 미 대륙을 휩쓸고 간 기록적인 더위만큼이나 뜨겁고 열기에 찬 분위기였다.

나는 2003년 이후 매년 6월에 개최되고 있는 서울대 동창회 평의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오고 있다.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로도 그럴 것이다. 나에게 평의원회 모임은 축제이고, 여행이며, 이민 생활의 활력소이자, 쉼터이다.

나는 간절한 그리움으로 내년 6월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송창원 · 김태환 · 김창수 선배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인생 경험”

임헌민 (공대 84)

오랜만에 미네소타에 왔다. 2001년, 그러니까 벌써 25년 전쯤, 하던 박사 과정을 미련 없이 접고 마이크로소프트로 떠났었다. 미국에 와서 처음 정착했던 곳, 미네소타는 이제 마음의 고향 같다. 사방 팔방으로 뽕뽕 뿜려 잘 달리는 고속도로, 산이 없는 평지이니 하늘이 넓게 보이는 경치, 친절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경제 (농업 Cargill, General Mills, 의료, 3M, Honeywell 첨단기기등이 주요 사업이다), 춥다고 유명한 곳이지만 여름은 제법 더워 땀이 나는 그런 곳, 미네소타.

그 때 그 시절 학교 공부할 적에, 안면이 있던 몇 분을 다시 만났는데 다들 그 대로였다. 어쩌면, 그 웃는 모습에, 말투까지. 변우진(인문 81) 동문께서는 바쁜 신 와중에도 이번 방문 기간 내내 아침마다 나를 라이딩해주시고 (나는 두 도시(Twin Cities)의 반대쪽에 있는 고종사촌 동생집에 머물고 있었다), 미네소타 대학교 캠퍼스도, Weisman Art Museum도 구경시켜 주셨다.

평의원 회의는 미국 전역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이틀간 회의를 진행했다. 처음엔 어색할 줄 알았지만,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를 보며 “이래서 동창회가 유지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임헌민 동문(맨 오른쪽)이 김태환(의대 58) 동문 부부와 함께 했다.

오신지 너무도 오래 돼서, 이젠 토론할 때 영어가 더 편하신 선배님도 계시고, 50년대 60년대 학번부터 다양한 연령의 동문이 참석하였다. 미국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다들 열심히 살아 오셨고, 서울대인으로서 자부심도 대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나도 그동안 수고하였다고, 모교 총동창회장이 주는 공로상을 받는 영광이 있었다. 시애틀 워싱턴주 지부 총무로 17년 그리고 2년 회장으로 봉사하였는데, 사실 좋아서 한 일이고, 선배님들로부터 사시는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배운 걸로 치면 수업료를 내야할 판인데 상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연로하신 선배님들과의 만남이 참 인상 깊었다. 새로운 인생 경험이었다. 송창원(문리대 53), 김태환(의대 58), 김창수(의대 53) 선배님 세 분 모두 대단하셨다.

송창원 선배님은 평생을 미네소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셨고, 90세가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PowerPoint 자료를 직접 준비해오셨다. 그 열정과 건강하신 것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6/25 전쟁에 참전하여, 박헌 총알이 지금도 허리 척추에 꽂혀있는 대로 살고 계신다는데, 그런 고생을 한 세대를 살아 오신분이, 이 연세에 이런 활동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였다.

김창수 선배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코네티컷에서 혼자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혼자 오셨다고 한다. 올해 94세. 육체적 건강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정신이 너무나 또렷하시다. 회의 둘째 날 점심자리에서, 트럼프가 이란에 병커버스터를 투하했다는 뉴스를 듣고 아내가 “이제 3차 세계대전 터지는 거 아니냐”고 문자를 보내와서, 옆에 계시던 선배님께 “미국이 이란에 병커버스터를 떨어뜨렸대요” 하니, “나도 알아, 방

금 봤어”라며 대답하셨다. “그렇게 주저하던 트럼프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2주 시한 준다고 하더니...”라고 여쭙니, “내가 이란이라면 방사능 물질을 빼돌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게 감지돼서 그런 것 아니겠나”하신다.

아이구, 세상에. 나보다 세상 소식이 더 빠르다.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데, 그 통찰력과 반응 속도에 그냥 놀랄 수밖에 없었다.

김태환 선배님은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하다. 표정이 참 밝으셨고, 이내 나를 알아 보시고, 안부 인사를 해주셨다. 최근 50년 가까이 거주하시던 미네소타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셨단다. 그 옛날, 내가 미네소타를 떠날 즈음의 일들을 나보다 더 생생히 기억하셨다. 너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나도 흐뭇해졌다.

나도 이분들 선배님들처럼 앞으로 살아 갈수 있을까? 긍정적이고 밝게 사는 게 힘. 정신이 무너지면, 육체의 건강도 무너진다. 따라서 정신 건강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말씀, 귀담아 듣는다.

이번 미네소타 평의원 회의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였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서울대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준 뜻깊은 여정이었다.

“평의원 회의는 축제이고 여행이며 삶의 활력소”



총동창회와 미주동창회 “우리는 하나”

황효숙 18대 신입 회장(왼쪽부터)이 이상강 17대 회장, 김종섭 총동창회장과 한자리에 앉아 협력을 다짐하듯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평의원회의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미네소타 동문들은 제34차 평의원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두팔 걷어부치고 온 힘을 모았다. 왼쪽에서 세번째 박현아 신입 사무총장과 그 옆에 박 동문 남편인 문성인 미네소타 지부 회장의 모습이 보인다.



15대 신응남 회장도 “반가워요”

남가주 이채진, 강미자 동문 부부와 뉴욕 신응남, 이희만 동문 부부가 타계한 커네티컷 유시영 동문의 부인 유은주 여사와 자리를 함께 했다.



“지역은 달라도 우리는 서울대 한가족”

뉴잉글랜드 지부의 박영철, 정선주 동문 부부, 미시간 지부의 이호정, 이광진 동문 부부 남가주 노명호 16대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유홍림 총장과 가족사진 한컷!

제34차 평의원회의의 하이라이트였던 ‘미네소타 프로젝트 워크숍’ 준비위원장을 맡은 강경철 동문 가족이 유홍림 총장(가운데)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



수준급 축하 음악회 “놀라워”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전문 연주자 부녀가 참가해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바이올린과 가야금을 위한 곡 ‘아빠하고 나하고’를 연주해 동문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남 교수는 제3대 장이욱 서울대 총장의 외손자이고 그의 딸 애리어나 김은 코넬대 교수로 서울대 초빙교수를 지낼 당시 가야금을 배워 이번에 연주한 ‘아빠하고 나하고’를 작곡해 아버지에게 헌정했다. 동문들은 “평의원 회의에서 이렇게 수준높은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니 그저 놀랍다”며 “특히나 그 옛날 많이 불렀던 ‘아빠하고 나하고’ 동요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오랜만에 어린 시절 추억에 젖었다”고 전했다.



“역시 공부하는 동창회”

동문들이 거의 공부하는 표정과 자세로 평의원 회의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김종섭 총동창회장과 이상강 17대 회장, 김경숙 17대 사무총장 뒤 테이블에 윤상래 14대 회장, 박종수 동문의 모습이 보인다.

“2년? 10년? 인공지능이 인간 두뇌 능가할 것”

SNU포럼 5월 강연 지상중계

인공지능의 특이점은 과연 올 것인가

2025년 5월 12일 개최된 SNU 포럼 초청 강사는 이수영(공대71) 동문이다. 이 동문은 카이스트 명예교수로 현재는 AI회사인 NEOLI의 공동창업자 겸 CTO를 맡고 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최첨단 과학 기술 현장에서 현재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AI의 특이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수영(공대 71)
카이스트 명예교수

1. 인공지능의 특이점

싱글레리티(singularity)가 오늘 강연의 제목인데 사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 하나다. 캠브리지 디셔너리를 들여다보면 ‘더 퀄리티 오브 빙 스트레인지’(The quality of being strange), 잘 이해가 안 되는 현상 또는 언프리더블, 예상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

요즘 AI 싱글레리티에서 더 정확하게 쓰는 것은 컨트롤을 못하는 것, 어떤 시스템의 아웃풋이 무엇이 될 지 예측 못하고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싱글레리티라고 한다.

AI 싱글레리티는 조건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AI의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어야 되고 둘째, 그것 때문에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는 것이다.

왜 인공지능에 대해서 논란이 많냐 하면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또는 자동차 산업 같은 특정한 분야가 아니고 모든 산업에 관련된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인데 인공지능은 사람의 기능을 대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에 관련 될 수밖에 없다.

1, 2,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대량 생산이나 고속 계산이나 대용량 원거리 통신을 해서 인간 사회를 혁신시킨 것인데 인공지능은 사람이 잘하는 기능의 일부까지도 기계가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인류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어서 4차보다는 2단계 산업혁명의 첫 번째, 이런 식으로는 표현하고 있다.

2. 챗GPT의 충격

2016년에 열풍이 시작됐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바둑으로 이긴 것이다. 뒤이어 챗GPT로 이어졌다.

챗GPT가 나온 이후로 과학 기술에 문외한들도 AI가 재미있고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1950년대에 AI 단어가 만들어졌고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지만 열매

로 IT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3. 주요 AI모델 발전

음성 인식, 영상 인식이라는 두 가지 감각, 두뇌 작용으로 보면 가장 낮은 레벨인 감각 기능을 학습 기반의 AI 기

뛰어나다는 수준까지 왔다. 다음에 언어 이해, 읽는 것이 되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마지막이 프리딕션 리즈닉 쪽으로, 보통 추론이라고 말한다. 이런 급격한 성장 덕분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3. 프로그래머가 실직하는 시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는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에서 AI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이트 코드 작성하는 데 쓴다는 사람이 80%가 넘는다. 재작년 자료이고 지금은 90%가 넘는다. 심지어 테스트까지 해주고 도큐멘테이션까지 해주는 상황이다.

비교적 단순한 코드 작업에 대해서는 AI가 절반 정도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현재 AI 수준이 단순한 코딩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야기다. AI 성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복잡한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고 본다.

4. 특이점은 언제인가

모델 구조에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CNN)이라는 것이 많이 쓰이는데 사실은 뇌의 알고리즘을 본 떠 온 것이다. 학습 법칙이 챗GPT가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에 뭐가 나올 지를 예측하고 이게 예측되면 다시 그것으로 다음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토큰 1에서 토큰 2가 만들어지고 토큰 2에서 3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학습이라는 것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이 원래 데이터에 있었던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냐를 계산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요약해 보면 인공지능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학습의 변수에서는 인간이 더 많고 학습 속도/데이터량에서 인공지능이 능가하고 학습 모델에서는 인공지능이 비교적 심플한 학습 법칙을 쓰기 때문에 인간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현재 두 가지 중요한 요소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훨씬 능가하고 있고 학습 변수의 수에서도 5년 이내에 극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 두뇌를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게 언제이냐인데 최근 연구자들은 향후 2년에서 10년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4차 보다는 2단계 산업혁명 시작이 맞아 현재 AI는 단순한 코딩작업 할 수 있는 수준 인간의 학습 모델 파악해 극복하는 것이 관건

는 인터넷, 아이폰 덕분에 열렸다. 두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AI가 학습 기반이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이를 해결해줬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데이터를 얻기가 무척 힘들었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레이블링을 해야 했다. “이건 무슨 소리”고 “이건 무슨 소리입니다”를 해야 되는데 성우를 모셔다가 실험실에서 녹음한 다음 만들 수 있었다. 인건비 탓에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인터넷이 들어서고 특히 스마트폰이 나온 덕분에 모든 사람이 말하면 누군가의 음성 인식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폰, 다음에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계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도체, 마이크로 프로세서 나왔고 심지어는 병렬 처리한 GPU의 발전이 있었기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줄었기에 현재 AI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

술이 사람을 능가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앞부분이 필기체(핸드리튼) 숫자 인식이다.

오래 전부터 숫자를 기계가 인식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 일찍 연구가 시작됐다. 다음이 이미지 프로세싱의 필요성이다. 필기체 인식보다 조금 더 어려워서 늦게 시작했다. 거의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또한 음성 인식이다.

물론 음성 인식을 이미지 문자 인식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려면 제한된 단어 인식으로 시작했다. 연속 음성 인식이 나오고 2010년에서 10년 넘어서부터 AI가 심플한 음성 인식, 영상 인식 분야에서는 평균적인 사람을 능가했다. 다음이 리딩 컴프레션, 즉 언어가 가능해졌다.

실제 인간의 인지 기능의 첫 번째가 언어 기능이다. 언어가 2015년 이후에 급격히 성장해서 지금은 보통 사람보다

초등학생 아들에게 16 - 9 = 8이라고 가르친 엄마



서중민
(공대 64)

많은 동포들이 가보지 않고, 들여보지 못한 세상이 있음을 얘기하고 싶어 글을 쓴다. 20년 넘는 얘기지만 지금도 많이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

은퇴하기 전 일하던 회사에서 필라델피아 지역에 사는 초등학생들을 2주에 한 번씩 회사에 데려와 점심을 같이 하며 멘토링(mentoring)을 했었는데 나는 Brown이라는 초등학생을 정기적으로 만나 멘토링을 하게 되었다.

하루는 그 아이를 Phillies 야구 경기

에 데려가기 위해 그의 집에 갔는데 집에 도착하니 그의 엄마가 Brown의 산수 숙제를 도와주고 있어서, 숙제가 끝나기를 그 모자 옆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가 Brown의 숙제의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16-9=8 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내심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엄마가 답을 알아 내는데 열 손가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계면쩍게 웃으면서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 당시에는 필라델피아 고등학생의 dropout율이 50%였으니 자랑할만도 했을 듯하다.

2022-23년도의 dropout rate는 14%라고 한다. 허나 학생들의 교육성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2022-23 보고에 의하면 필라델피아 흑인 학생 3-8 학년의 수학 proficiency rate는 9.3%이다. 서울대 필라델피아 지부에서 필라델피아 고등학교 12학년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에세이를

쓰게 한 적이 있었다. 두 학생의 글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도 무지 모를 정도였다. 어떻게 그들이 대학에 가서 우리 자녀들과 경쟁을 할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우리 아이들과 Brown의 미래를 비교하니 Brown의 장래가 밝지 않았다. 그러한 열악한 학교 교육을 보면서 흑인들의 장래가 좋아질 것이라 희망할 수 없었다.

한국이 세계가 인정할 만한 괄목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이란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학생당 예산을 제일 많이 쓰면서 고등학생들의 과학, 수학 실력은 OECD 나라 중 중간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미국학생들의 실력이 낙후된 큰 이유는 공교육의 실패 때문이다.

COVID때 학교를 닫아버리고 온라인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비극을 가져온 것은 교원 노조

가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온 것이란 것을 모르는 동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교원 노조의 절대적 권력을 깨뜨리는 방법은 공교육에 대안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School Choice를 주어 공교육에 경쟁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학생들의 실력은 향상하게 되어 있다. 허나 오직 14개의 주에서만 school voucher를 주어 공립 학교에 주는 기금을 사립학교에 갈 수 있게 하고 있다.

많은 동포들이 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school choice를 줌으로써 마이너리티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했으면 한다. 민주당이 다스리고 있는 큰 도시들은 형편없이 학교를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의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지 않은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Newsum)이 그 좋은 예다. 그런 리버럴(limousine liberal)들을 정의의 틀 외면하는 racist라고 고소하고 싶다.

90대에도 40대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습관



임영빈
(의대 · 노년내과 전문의)

남가주 많은 서울대 동문들의 주치의로 활약중인 임영빈 박사는 스탠퍼드 의대에서 특별히 노인과를 전문으로 수련했고 부친 임대순 박사를 이어 2대째 의사를 하고 있다. 임영빈 박사는 유튜브 채널 지식보관소에서 노년기 건강을 다뤄 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데 서울대 동문들을 위해 심장 건강관리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주>

93세라는 나이에 지난해 세계 실내 로잉 머신 대회에서 네 번째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한 리처드 모건(Richard Morgan)은 '40대의 심장을 가진 93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운동을 시작한 나이가 은퇴 후인 73세라는 것이다. 그의 운동법과 식단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한 의과대학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그의 신체 기능과 훈련 과정을 평가한 결과, 그의 심폐활량이 40대 성인의 심폐활량

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그의 심폐활량 지수는 44로 나타났는데, 이는 40대 연령에서도 높은 카테고리 수준에 해당한다. 90대 나이에 40대 심장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멋지지 않은가? 활력 넘치는 삶을 사는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

한 기자회견에서 리처드 모건은 자신의 운동 방법에 대해 70%는 쉬운 운동, 20%는 어렵지만 할 만한 운동, 나머지 10%는 최고치 능력으로 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즉, 70~90%의 시간을 저강도 유산소 운동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의미다. 그의 운동 방식은 미국 보건복지부가 성인을 위한 신체 활동 지침으로 권장하는 바와도 일치한다.

그 지침에 따르면, 일주일에 총 150분, 하루에 30분씩 다섯 번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일주일에 15분씩 다섯 번 총 75분 고강도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는 '체력이 좋다'는 말을 흔히 사용하는데, 체력은 최대산소섭취량이라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최대산소섭취량을 뜻하는 VO₂ max에서 V는 volume(양)을 뜻하고, O₂는 산소, max는 최대를 의미하며, 단위는 mL/kg/min으로 나타낸다. 즉, 이는 운동하는 사람이 1분 동안 얼마나 많은 산소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쉽게 말하면, 차의 배기량과 비슷하다. 배기량이 큰 차가 더 힘차게 잘 나가듯이, 최대산소섭취량이 높을수록 산소를 잘 활용하며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쉽다. 최대산소섭취량은 나이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화로 인해 대략 10년마다 10%씩 줄어든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청년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오르던 사람이, 중년기나 노년기에는 몇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 헉헉거리며 힘들어하는 상황과 같다. 하지만 이 변화는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비슷한 속도로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2002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최대산소섭취량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률이 4.5배나 낮았다. 체력을 기르면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일의 효율도 올라간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지만, 사망률이 이토록 낮아진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JAMA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4년까지 12만 명(평균 나이 53.4세)의 심폐 건강을 추적한 결과, 심폐 건강과 사망률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최대산소섭취량 상위 2%를 지닌 사람들은 하위 25%에 비해 사망률이 80%나 낮았다. 이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폐 기능이 향상되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암, 질병, 낙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도 낮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에 최대산소섭취량이 낮은 사람들은 각종 심혈관 질환과 다른 질병들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최대산소섭취량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최대산소섭취량은 어떠한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측정되었을 수 있다. 잠시 책을 내려놓고 건강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최대산소섭취량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희망적인 소식은, 남녀노소 누구나 훈련을 통해 최대산소섭취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사이클리스트 로베르 마르상(Robert Marchand)은 2012년, 101세의 초고령 나이에 1시간에 24.25km를 완주하며, 100세 이상 참가자들 사이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 그의 최대산소섭취량은 당시 놀랍게도 31mL/kg/min이었다. 더 놀라운 점은 103세가 되었을 때는 35mL/kg/min까지 향상시키며, 나이가 들어도 체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대산소섭취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계점에 이르는 강도의 운동을 해야 하지만, 일반인이 그런 강도의 운동을 바로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고 병행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한데,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대산소섭취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먼저 훈련한 후, 고강도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준비되면,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주 4회,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주 1회 정도 배분하면 된다.

오카리나를 불며 “빠죽빠죽” 노래하다보니...



천양곡(의대 63)

빠꾸기의 노래

초록의 계절 6월, 햇빛 비치는 상쾌한 아침이다. 치매가 멀리 따라오도록 뇌를 자극해 옛 기억을 떠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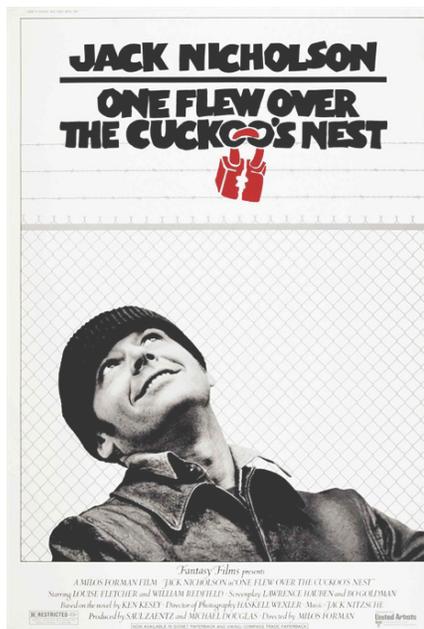
의예과 시절엔 취미삼아 바이올린을 배워보았고, 현역 정신과 의사로 일할 땐 잠깐 통기타, 몇 년간 키보드 악기도 시도했다. 노래는 그럭저럭 부르는 편이다. 그런데 악기는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 하다가 그만두는 때가 많았다. 지금은 은퇴 생활을 하며 오카리나를 유튜브로 배우고 있다. 몇 달 전 한국 방문시 가까운 친구에게 ‘음치’는 아닌데 ‘악기치’에 가깝다는 말을 했더니 가장 배우기 쉽다는 오카리나를 사준 것이다.

오카리나는 원래 흙으로 만든 작고 귀여운 거위모양의 피리 종류 악기다(사진참조). 소리는 여성의 음성같이 순하고 맑다. 요즘 빠꾸기 동요 노래를 연습 중이다.

‘빠죽 빠죽 봄이 가네’ 오카리나의 빠꾸기 노래 소리는 어딘가 낯설고 이상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처럼 잊고 있던 옛 환자를 떠올리게 한다. 환자는 20대 초반의 남자로 정신분열증을 앓고있었다. “곧 CIA가 잡으러 오니 어서 피하라는 빠꾸기 소리가 자꾸 들려요, 어떻게 하죠, 선생님” 그의 눈빛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처음엔 빠꾸기 소리가 집 근처 언덕에서 들리기 시작하더니, 조금 뒤엔 자기가 자는 방에서 들려오고, 이제는 자신의 머릿속까지 스며 들어와 계속 소리치고 있다는 하소연이었다.

그는 빠꾸기 소리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 진심 속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더 깊고 두려운 감정이 숨어 있는듯 느꼈다. “빠꾸기 소리로 내게 자꾸 암호를 보내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속으론 잠시 헛웃음이 나왔지만 생각해 보면 빠꾸기 소리는 환자에게 단지 새의 울음이 아니었다. 생존의 신호이자 절박한 외침이었다.

왜 환자에게 다른 새가 아닌 빠꾸기 소리가 들려오는 걸까? 환자는 학생 시절에 공부도 그리 잘하지 못했고 여자 친구는 물론 주위에 남자 친구들도 별로 없는 외톨이였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쿡쿠(Cuckoo 빠꾸기)였다. Cuckoo는 중세 서양사회에서 어수룩한 얼간이, 멍청이



잭 니콜슨이 주연한 영화 ‘빠꾸기 동지 위로 날아간 새’의 포스터. 오른쪽 사진은 천양곡 동문의 악기 오카리나.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수없이 많이 만난 환자들

“그에겐 왜 도망치라는 빠꾸기 소리가 들렸을까?”

어쩌면 그속엔 삶에 대한 공포, 고독, 갈망 담겨 있어

란 뜻으로 쓰였다. 빠죽 빠죽 하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이상한 소리가 멍청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그후 세월이 가며 쿡쿠는 어딘가 좀 나사 빠진 정신나간 사람, 미친사람이란 의미도 포함시키게 된다. 아마 빠꾸기가 자기 동지를 만들지 않고 다른 새의 동지에 자신의 알을 몰래 낳는 기묘하고, 사회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비정상적인 생태 습성 때문인 듯 싶다. 하지만 빠꾸기는 환자의 무의식 속에 자신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으로 동일화 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1975년, 나는 정신과 수련의였다. 병실을 이리 저리 뛰어다니고, 프로이트, 융의 정신분석 이론과 정신약물학 책을 읽고 배우는 병아리 정신과 의사였다. 그때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영화가 나왔다. Cuckoo’s nest는 미친자들이 모여있는 동지로 정신병동을 의미하는 속어다. 아카데미 수상작인 이 영화는 당시 일반 사회와 정신의학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정신과 수련의를 포함 정신의학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할 영화 중의 하나였다.

영화 속 병원의 담당자들은 환자들의 이상함을 통제하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오히려 그것들이 정상보다 더 이상하게 보였다. 더구나 환자들을 빠꾸기처럼 외부의 기준에 따라

미친 새로 분류했다. 가장 충격적 사실은 병원 안의 사람들 중 누가 정상이고 누가 환자인지 경계가 희미하다는 점이 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비극적이고 인상적이다. 빠꾸기 동지로 박차고 날아간 환자, 그러나 너무 늦어버린 탈출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던 생각이 난다. 간단히 영화 내용을 소개한다.

미성년자 강간과 사기범 맥머피(잭 니콜슨)는 감옥 가기 싫어 정신병 환자로 위장한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보니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 정책이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자유와 인격은 박탈 당하고, 정신과 약물과 전기충격 요법, 그리고 뇌전두엽 절제 수술로 인해 반쯤은 혼이 나간 환자들이 병실에서 서성거린다.

맥머피는 그런 환자들을 부추켜 환자의 자유와 활력을 되찾게해주려고 병원 당국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몰래 입원 환자들을 데리고 병원 밖에 나와 시내 구경시키는 등, 강간 흉악범이라기보다 권위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자유주의자 처럼 행동한다.

맥머피는 병원에서 일부러 병어리 행세를 해오던 인디언 추장 별명을 가진 덩치 큰 환자-브롬든과 우정을 쌓은 끝에 브롬든을 다시 말을 하게끔 만든다. 브롬든은 맥머피와 함께 정신병원 탈출을 시도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밀폐된 정신병원이란 공간의 무게, 엄격한 수간호사의 태도, 병원 당국의 권위적 규율은 맥머피의 영혼마저 정신병원이라는 체제 속으로 잠겨버리게 만든다. 탈출에 실패한 반항의 대가로 맥머피는 극히 위험한 환자로 진단 받아 뇌전두엽 절제 수술을 받는다. 혼이 육체에서 사라진 좀비가 되어버린 친구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브롬든은 우정어린 손으로 맥머피를 질식사 시킨다. 그리고 브롬든 홀로 빠꾸기 동지 위로 훨훨 날아가 버린다.

수련의를 끝내고 진짜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수 없이 많은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떤 때는 어린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울먹이는 소리, 누구를 해치려는 바람타고 들려오는 악마의 위험한 명령 소리, 혹은 누군가 자기 집 지붕 위의 안테나를 이용해 자기 마음을 조종하는 전파를 보내고 있다고 믿는 소리, 그리고 앞 환자같이 도망가라는 빠꾸기의 소리도 들었다.

우리가 환상과 망상이라 부르는 그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다분히 인간적인 존재의 울음의 공간일지도 모른다. 그 속에는 공포와 고독, 과거의 상처와 삶에 대한 갈망이 깃들여 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빠꾸기 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세상과 싸우고, 버티고, 도망치고 때로는 화해하며 살아간다. 삶은 이렇게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징표도 된다.

나는 계속 오카리나를 입에 대고 불고 있다. 빠죽 빠죽- 두 음절이 공기를 타고 밖으로 퍼진다. 그럴 때마다 영화 속 병동 환자들의 초점 잃은 눈빛은 대형 주립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환자들의 얼굴과 묘하게 겹쳐진다. 누구는 빠죽 소리를 공포로 듣고, 누구는 음악으로 풀고, 누구는 악기로 재현한다.

어떤이는 정신질환이라 부르고, 어떤이는 예술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목소리라 여기면 편할 듯 싶다.

영화 속의 맥머피는 누가 정상이고 누가 환자인가를 따져 묻는다. 그의 질문은 충격적으로 불편한 진실에 가까웠다. 나 또한 정상(Normality)이란 존재하는가, 단지 신화에 불과한 것인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상 범위인가. 정상인과 정신병 환자 사이의 경계를 구별할 수 있는가, 정신과 치료한 무얼까 하는 질문들이 50년 넘게 내 마음 속에서 아직도 울리고 있다. 그러나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내 약점을 보완하려고 피아노를 전공한 배우자를 택한 사실만은 확실한 것 같다.



김학천
(치대 71)

‘정국거(鄭國渠)’와 하버드

업을 추진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 그 과정 중에 예기치 않은 첩자 사건이 발생했다. 진나라의 급격한 부상을 우려했던 이웃 한(韓)나라가 토목 분야 전문가 정국(鄭國)을 진나라로 파견했다.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으켜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습지를 농토로 만드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하던 중 정국이 한나라의 첩자라는 혐의가 밝혀지면서 진시황은 그 동안 진나라에 와 있던 외국 출신의 학자나 기술자 등 모든 전문가를 추방하라는 축객령(逐客令)을 내렸다. 그러자 정국은 자신이 한나라의 첩자임은 인정하지만 관개용 수로사업이 마무리되면 진나라가 통일 전쟁을 수행할 군량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여기에 진시황의 책사인 이사(李斯)도 초나라 출신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놓이자 당시 진나라가 거둔 성공은 자국의 인재보다도 외국인의 인재가 실력을 발휘해 통일 대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태산이 왜 높은 산이 되고 강과 바다가 마르지 않고 유유히 흘러가는지를 설명했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는 자세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고, 하해(河海) 즉,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아 더 깊어지는 것’이라 했다. 이에 진시황은 정국의 해명과 이사의 간언을 수용하고 재등용해 마침내 국가를 부강케 하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국이 완성한 관개수로시설은 지금까지도 ‘정국거(鄭國渠)’란 이름으로 남아있다. 진나라의 재상 25명 중 타국 출신이 17명이었던 것이라 하니 진나라가 천하의 주인이 된 배경에는 이런 개방적인 인사정책이 큰 몫을 했던 것이다. 미국의 변영 또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최고의 인재들이 자유롭고 차별 없는 연구 환경에서 혁신을 일궈낸 결과인데 지금 하버드 대학은 ‘반(反)유대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 속에 일전을 치르고 있다. 지난 달 29일 하버드대의 졸업식 연단에 오른 앨런 가버 총장은 ‘자신의 믿음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찾고, 반박하는 증거는 무시하곤 한다’며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절대적인 확신과 의도적인 무지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며

그 동전은 가치 없는 것임에도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 차단 조치, 유학생 이름과 국적 공개 요구, 유학생 수 감축 요구 등 일련의 ‘하버드 때리기’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하버드 대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없는 하버드 대는 하버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일찌기 사기를 쓴 사마천은 한나라의 ‘안정과 위기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달려있고, 존속과 멸망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과연 미국 역사보다도 오래된 하버드대가 미국의 퇴행을 막는 보루가 될 수 있을는지. 이런 말이 있다. ‘우리의 출신지보다 우리의 목적지가 더 중요하다.’ 자유롭고 개방된 포용력이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로마는 역사상 유례가 드물게 1,000년의 변영을 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의 개방성’이라 진단했다. 중국 서북방 변방에 있어 오랑캐라고 천시받던 진나라는 어떻게 전통 강국들을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강력한 군대와 인재 중용정책이 있었다. 진(秦)나라는 역대 선왕들 중 목공이 우(虞)나라의 현자 백리해와 융(戎)의 유여를 영입하는 개방된 인사정책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효공이 위나라 출신 상앙을 재상으로 기용해 개혁을 이루고 국부를 튼튼하게 기반을 다졌다. 이를 토대로 진시황에 이르러 6국을 잠식해 가면서 통일 대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미안해 엄마~” 세계가 반한 ‘쿨 코리아’

#장면 1: 한 달 전 쯤의 일이다. 모처럼 앞마당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다. “아~파트, 아파트~” 설마? 고개를 들어보니 백인 소녀 둘이 강충강충 뛰면서 로제의 글로벌 히트송을 신나게 따라 부르고 있었다. “Kissy face, kissy face~”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는 부모의 얼굴도 인상적이었다. 그날 케이팝의 인기를 우리 동네에서도 새삼 실감했다.

#장면 2: 며칠 전 유튜브에서 BTS 제이홉(정호석)의 파리 공연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다. 올해 초 프랑스의 영부인 브리짓트 마크롱 여사가 주관한 자선행사에서 제이홉이 오프닝 순서를 맡은 장면이었다. “What’s up, Paris!” 인사를 건네며 무대에 오르자 4만여 관객이 일제히 외쳤다. “제이홉! 제이홉!” 이어진 ‘Mic Drop’ 무대에선 관객들이 완벽한 한국어로 때창을 펼쳤다. “미안해 엄마~” 그 열광의 현장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한국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

적인 장면이었다.

#장면 3: 최근 한국의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인 토니상에서 무려 6관왕을 차지했다. 토니상은 영화의 아카데미상, 방송의 에미상, 음악의 그래미상과 함께 미국 대중문화의 4대 어워드로 꼽힌다. 이제 한국은 그래미상만 받으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 BTS, 블랙핑크 등의 세계적인 인기를 고려하면, 그래미 정복도 머지않아 현실이 될 듯하다. 21세기에 들어, 국민총생산(GNP)과는 또 다른 개념이 등장했다. 바로 ‘국민총매력지수’라고 불리는 GNC(Gross National Cool)다. 한 나라가 얼마나 ‘쿨’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계량화한 지표다. 이제 국력은 단순한 경제력



토니상 6관왕 수상 쾌거를 이룬 한국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과 감성적 매력, 곧 ‘쿨함’으로 측정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쿨’이라는 개념은 음악, 그중에서도 재즈에서 시작됐다. 쿨 재즈는 부드러운 음색과 간결한 멜로디로 여유와 감성을 전달했다. 마일스 데이비스가 발표한 ‘쿨의 탄생’(Birth of Cool) 이후 ‘쿨’은 미국문화의 상징처럼 자리잡았다. 일부 학자들은 쿨의 뿌리를 아프리카에서 찾는다. 노예로 끌려온 상황 속에서도 분노 대신 품위를 지켰던 정신, 위기 앞에서도 유머와 관용,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태도. 쿨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철학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였다는 것이다. GNC를 국가브랜드 전략으로 채택한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장기불황의 돌파구를 문화 상품 수출에서 찾자 내세운 것이 ‘쿨 재팬(Cool Japan)’이다. 지난 2016년 8월 브라질 리우 올림픽 폐막식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슈퍼마리오 분장을 하고 등장한 ‘아베 마리오’는 그 전략의 절정이었다. 그러나 그 퍼포먼스는 사실상 ‘쿨 재팬’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문화의 본질보다 마케팅 논리에 치중한 전략은 결국 세계인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표류중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GNC는 어느 정도일까. 파리의 4만 청중이 “미안해 엄마~”를 외친 그 열기를 수치화한 것이 아닐까. 한국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공항은 세계 일등이고, 고속도로 확장률은 세계적 벤치마킹 대상이다. 커피숍 테이블에 휴대폰을 놓고 돌아다녀도 분실 걱정이 없고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려도 대부분 되돌아온다. 코리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쿨’한 나라 중 하나다. (문리대 66)

학부생, 보수화 추세...경제 우선 가치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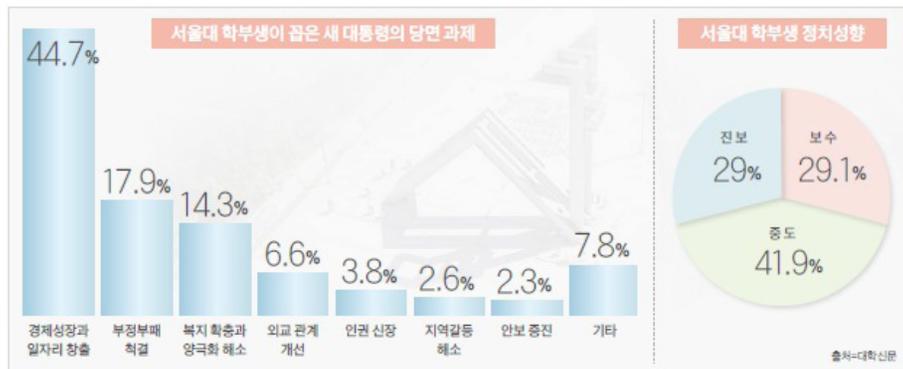
‘대학신문’ 학부생 조사 8년새 ‘보수’ 3배 29.1%

서울대 학부생의 정치의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신문’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시행한 정치의식조사 결과, 서울대 학부생 사이에서 ‘보수’ 성향이 크게 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으로 ‘경제성장’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온라인으로 시행됐으며, 1057명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서울대 과학데이터혁신연구소의 통계 분석을 거쳐 발표됐다. 이는 1985년 이후 열한 번째로 실시된 조사로, 정치 성향, 정당 지지, 정책 선호, 정치 참여 방식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보수’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29.1%로, 2017년 조사(9.4%)보다 약 세 배로 급증했다.

반면 ‘진보’ 응답자는 41.8%에서 29%로 줄었고, ‘중도’도 48.8%에서 41.9%로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



졌다. 여성 응답자의 43%는 자신을 ‘진보’로 인식한 반면, 남성 응답자의 38.9%는 ‘보수’를 선택했다.

보수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는 국민의 힘이 아닌 개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밝혀, 기존 보수 정당에 대한 이탈과 새로운 대안 모색이 활발해진 모습을 보여준다. 진보 응답자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응집돼 있으며,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소수 지지에 그쳤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전

체 응답자의 78.6%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진보층(90.8%)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탄핵 집회 참여율은 32%에 그쳐, 2017년 촛불집회 참여율(58.8%)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치 참여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었다. ‘지인과의 정치적 논쟁’(52.8%)과 ‘SNS를 통한 의견 게시’(24.3%)가 크게 증가했으며, 정당 가입이나 사회단체 후원 등 간접 참여도 활발했다. 이는 집회 중심의 전통적 방식보다, 일상 속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대생들이 꿈꾸는 미래 한국 사회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경제가 튼튼한 나라’가 36.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며, 2017년 가장 많이 선택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나라’(13.2%)를 크게 앞섰다. 대통령의 당면 과제로도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44.7%로 1위를 차지해, 경제에 대한 위기감과 기대가 동시에 반영됐다.

정책 선호는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보수층은 경제 성장과 대기업 세금 감면, 노동 유연성을 중시한 반면, 진보층은 양극화 해소, 부자 증세, 고용 안정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과반(52.2%)이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전체의 71.7%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공교육 강화’가 68%의 선택을 받으며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조사는 변화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서울대 학생들의 정치 의식이 더욱 현실적이고 정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만든 태양광차로 호주 대륙 3000km 종단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로 호주 대륙을 주행하는 경주가 있다. 서울대 동아리 ‘SNU SOLAR EV’는 2025년 전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자동차 대회(BWSC)에 참가한다. 국내외를 통틀어 학부생들이 전 과정을 주도해 완성차를 제작하는 드문 사례다.

5월 중순, 호주로 탑승되는 완성 차량 ‘SNU1(스누원)’을 보기 위해 5월 9일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동 차고를 찾았다. 이곳에서 팀장 김민규(전기정보 21·사진), 엔지니어링 매니저 유민우(기계21), 복합소재팀장 공중원(재료19)을 만나 제작 과정을 직접 들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와 원리는 같아요. 다만 전기 충전소 대신 태양광으로 실시간 충전하며 달린다는 점이 다르죠” 차량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전력을 생산해 배터리에 저장되고, 이 에너지로 약 3000km의 호주 대륙을 주행하는 것이 김민규 팀장의 목표다. 고온, 강풍, 광활한 거리 등 다양한 환경 조건이 도전 과제로 주어진다.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SNU1’은 3륜 구조로 설계됐다. “정면 너비를 줄이기 위해 조향할 때만 차체 일부가 열리는 방식으로 설계했어요. 직진 시에는 닫혀 있어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하죠” 이 독특한 조향 장치는 팀이 직접 설계한 기술이라고 유민우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말했다. 속도보다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설계다.

‘SNU1’은 차체 길이 6m, 무게 240kg



직접 설계·제작한 태양광 자동차 ‘SNU1’ 앞에서 기념 촬영한 SNU SOLAR EV팀.

태양광 자동차 동아리 SNU SOLAR EV 설계부터 제작까지 학부생 20명 참여

으로 초경량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최고 시속은 110km에 달한다. 복합소재로 제작된 국내 최초의 자체 제작 태양광 자동차로, 모든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야 했다. 팀원들에게는 모든 과정이 처음이었고, 제작 초기에는 실패가 반복됐다. 그러나 실전 경험과 반복 실험을 통해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며 자동차를 완성시켜 나갔다.

복합소재 성형 공정은 가장 큰 도전이었다. “길이 6미터에 이르는 카본 소재를 다루는 건 학부생 수준에선 거의 불가능해요” 공중원 팀장은 당시를 회상했다. 팀원 4명이 청주의 제조 공장에서 한 달간 숙식하며 고강도 작업을 소화

했다. 정밀성과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팀워크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번 대회는 제한된 트랙이 아니라, 일반 고속도로에서의 주행을 전제로 충돌 안전성, 조명, 제동 장치 등 다양한 안전 규정을 요구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설계부터 조립,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에 공을 들였다.

‘SNU SOLAR EV’팀은 전기, 기계, 재료, 비즈니스 등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팀원들은 각자의 학업, 아르바이트, 개인 일정을 미뤄두고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포르쉐 같은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스물셋 김민규 학생의 포부

는 광승엽(섬유83) 지도교수의 마음어린 상상도 있었다. 당돌하지만 진심 어린 다짐에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본 교수는, 직접 기업을 찾아가 지원을 설득하며 이들의 첫걸음을 뒷받침했다. 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팀은 이제, 서울대를 대표해 세계 기술 무대에 선다.

지난 1년 동안 팀은 차량 제작과 실주행 테스트를 병행하며 기술을 빠르게 고도화했다. 모든 공정을 학부생 손으로 수행한 끝에 참가 차량 ‘SNU1’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25년 8월, 호주 다윈에서 애들레이드까지 주행할 계획입니다” 약 7일간 펼쳐지는 이 경주는 고도의 전략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8월 열리는 호주 태양광 자동차대회(World Solar Challenge)는 1987년 시작돼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자동차 경주다. 호주 최북단 다윈에서 최남단 애들레이드까지 3022km를 주행하며, 전 세계 30여 개 대학이 참가한다.

이번 도전은 현대자동차, 코오롱, 솔라커넥트 등 기업의 후원 덕분에 가능했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어른들의 물질적, 정신적 후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팀은 2027년 대회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동문 선배들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송해수 기자**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 워싱턴주 -故고광선 (공대 57)
- 뉴욕 - 조상근 (법대 69)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 조지아 - 주중광 (약대 60)
-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골드이사 (\$10,000이상)

-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 남가주 - 김보연 (간호대 63)
-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 남가주 - 서동영 (사대 60)
-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 남가주 - 이홍표 (의대 58)
- 남가주 - 벤자민 흥 (문리대 53)
- 남가주 - 하기환 (공대 66)
-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 남가주 - 홍훈정 (음대 70)
-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 뉴욕 - 오인석 (법대 58)
-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2)
-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 시카고 - 조규승 (문리 72)
-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 필라델피아 - 손재욱 (가정 77)
-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 남가주 -故김원경 (약대 59)
-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 남가주 - 이종모 (간호대 69)
-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 뉴욕 - 김현중 (공대 63)
- 북가주 - 강재호 (상대 57)
- 북가주 - 박순희 (의대 60)
- 북가주 - 남광순 (음대 64)
- 북가주 - 차재철 (의대 62)
-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 워싱턴DC - 배성호 (의대 65)
- 워싱턴DC - 최재귀 (미대 63)
-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 필라델피아 - 신익석 (공대 53)
-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 남가주
- 故노재성 (법대 58)
- 故서영석 (의대 55)
- 故오재인 (치대 33)
- 故윤낙승 (의대 60)
- 강신용 (사대 73)
- 곽웅길 (문리대 59)
- 권기홍 (의대 60)
- 김광은 (음대 56)
- 김기형 (상대 75)
- 김대중 (의대 70)
- 김동훈 (의대 71)
- 김보연 (간호대 63)
- 김상찬 (문리 65)
- 김성호 (법대 64)
- 김수영 (사대 57)

- 김자성 (의대 79)
- 김재영 (농대 62)
- 김정빈 (공대 66)
- 나두섭 (의대 66)
- 나용화 (생과대 79)
- 류재풍 (법대 60)
- 박명근 (상대 63)
- 박용필 (문리대 66)
- 박원준 (공대 53)
- 박윤수 (문리대 48)
- 방명진 (공대 73)
- 백길영 (의대 58)
- 백만일 (공대 64)
- 서동영 (사대 60)
- 신건호 (법대 53)
- 신경자 (사대 60)
- 신영찬 (의대 62)
- 심상은 (상대 54)
- 안병일 (의대 63)
- 오홍조 (치대 56)
- 이근원 (공대 67)
- 이명선 (상대 58)
- 이성숙 (공대 56)
- 이세열 (사대 57)
- 이승훈 (상대 74)
- 이채진 (문리대 55)
- 이청광 (상대 61)
- 임낙균 (약대 64)
- 임용오 (의대 57)
- 전경배 (의대 69)
- 전희택 (의대 58)
- 정균희 (의대 64)
- 정동구 (공대 57)
- 정임현 (간호대 72)
- 정철룡 (의대 55)
- 제영혜 (가정대 71)
- 조용원 (문리대 66)
- 조한원 (의대 57)
- 차민영 (의대 76)
- 차종환 (사대 54)
- 한호동 (공대 58)
- 홍성선 (약대 72)
- 홍종화 (약대 74)
- 황해룡 (공대 52)

뉴욕

- 故김광호 (문리대 62)
- 故한창섭 (문리대 57)
- 故김종률 (사대 51)
- 강에드워드 (사대 60)
- 고애자 (음대 57)
- 권영국 (상대 60)
- 김승호 (공대 71)
- 김영용 (치대 55)
- 김한중 (의대 56)
- 김해암 (의대 52)
- 배정희 (사대 54)
- 서영숙 (간호대 67)
- 석창호 (의대 66)
- 손진태 (약대 67)
- 신응남 (농대 70)
- 오용호 (의대 66)
- 윤인숙 (간호대 63)
- 윤종숙 (약대 66)
- 이강홍 (상대 60)
- 이기영 (농대 70)
- 이대영 (문리대 64)
- 이영재 (상대 58)
- 이재덕 (법대 60)
- 이재량 (상대 61)
- 이진구 (농대 60)
- 이준행 (공대 47)
- 이태호 (상대 58)
- 조대일 (사대 53)
- 최수웅 (상대 55)
- 최영태 (문리대 67)
- 최한용 (농대 58)
- 추재욱 (의대 57)
- 한태진 (의대 58)
-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 故고일석 (보건대 69)
- 故박경민 (의대 53)
- 김광수 (문리대 73)
- 고종성 (사대 75)
- 김문소 (수의대 61)
- 김용구 (공대 66)
- 오세경 (약대 61)
- 윤선홍 (치대 64)
- 이익인 (공대 68)
- 전신의 (문리대 57)

- 정정욱 (의대 60)
- 정태영 (문리대 71)
- 조만연 (상대 58)
-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 故방은호 (약대 43)
- 강연식 (사대 58)
- 공순옥 (간호대 66)
- 권기현 (사대 53)
- 민홍기 (문리대 61)
- 박평일 (농대 69)
- 서희열 (의대 57)
- 오인환 (문리대 63)
- 이내원 (사대 58)
- 이선구 (문리 65)
- 이윤주 (상대 63)
-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 故남상용 (공대 52)
- 故정태 (의대 57)
-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 박종성 (법대 53)
- 박진영 (공대 66)
- 손석보 (공대 68)
- 윤정욱 (약대 50)
- 최경선 (농대 65)
- 한만섭 (공대 49)
- 황동하 (의대 65)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216,970.58
(04/30/25 까지)

오레곤

- 김상순 (상대 67)
- 박희진 (농 78)
- 이은상 (상대 52)

샌디에고

- 임천빈 (문리대 61)
- 유현주 (문리 65)
- 진성호 (공대 64)

미네소타

- 김권식 (공대 61)
- 김태환 (의대 58)
- 남세현 (공대 67)
- 변우진 (인문대 81)
- 조형준 (문리대 62)

오하이오

- 김용현 (경영 66)
-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 故김영일 (공대 53)
- 이명자 (간호대 74)
- 이희백 (의대 55)
- 임현민 (공대 84)

조지아

- 김용건 (문리대 48)
- 석호태 (공대 85)
-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 김중권 (의대 63)
- 임필순 (의대 54)

휴스턴

- 박진섭 (의대 67)

텍사스

- 박태우 (공대 64)
- 이광연 (공대 60)
-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리대 55)
- 김현영 (수의대 58)
- 서종민 (공대 64)
- 손재욱 (가정대 77)
- 신성식 (공대 56)
- 주기목 (수의대 68)

하틀랜드

- 故김명자 (문리대 62)
- 김시근 (공대 72)
- 배규영 (사대 68)
- 오명순 (가정대 69)
-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 골드이사 \$10,000 이상
- 실버이사 \$5,000 이상
- 종신이사 \$3,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6 James M Wood Blvd. Unit B, Los Angeles, CA 90006-2005 / 818-395-1967

www.snuaa.org
snuaausa17@gmail.com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남가주

- 강경수 (법 58)
- 강동준 (법 59)
- 강윤희 (간 46)
- 강재호 (상 81)
- 강창만 (의 58)
- 강춘자 (간 69)
- 강호석 (상 81)
- 고남규 (의 68)
- 고석규 (치 65)
- 권기상 (대 72)
- 권봉성 (문 64)
- 김경 (문 63)
- 김경수 (사 58)
- 김경자 (미 60)
- 김건진 (문 62)
- 김동석 (문 64)
- 김영배 (미 61)
- 김갑근 (공 60)
- 김경 (문 63)
- 김경수 (치 54)
- 김경옥 (미 61)
- 김경자 (미 60)
- 김광은 (문 56)
- 김기형 (상 75)
- 김난영 (공 53)
- 김동산 (법 59)
- 김명수 (문 58)
- 김명자 (간 60)
- 김명희 (간)
- 김문희 (문 83)
- 김범수 (문 61)
- 김병연 (공 68)
- 김병안 (공 58)
- 김상찬 (문 65)
- 김석훈 (법 59)
- 김성호 (법 64)
- 김성환 (의 65)
- 김수향 (간 68)
- 김순철 (법 54)
- 김순자 (치 57)
- 김영덕 (법 58)
- 김영경 (문 60)
- 김용주 (간 69)
- 김용채 (문 61)
- 김원택 (공 65)
- 김일영 (의 65)
- 김자성 (의 79)
- 김재영 (문 62)
- 김정애 (간 69)
- 김정호 (문 59)
- 김종표 (법 58)
- 김준일 (공 62)
- 김창진 (공 77)
- 김태환 (의 58)
- 김태환 (문 78)
- 김태환 (법 57)
- 김학철 (의 55)
- 김해숙 (미 68)
- 김홍록 (문 60)
- 김희창 (의 66)
- 나두섭 (의 64)
- 나승욱 (문 59)
- 나용화 (문 79)
- 노명호 (공 61)
- 노진길 (사 70)
- 노경호 (문 59)
- 문병길 (문 61)
- 마중일 (의 57)
- 민일기 (의 69)
- 박명근 (사 63)
- 박민식 (수 65)
- 박부강 (사 64)
- 박상원 (대 20)
- 박원준 (공 53)
- 박용 (문 89)
- 박우선 (공 57)
- 박은숙 (미 62)
- 박은희 (미 68)
- 박인수 (문 64)
- 박인창 (문 65)
- 박일우 (의 71)
- 박인하 (치 56)
- 박자경 (문 60)
- 박종수 (수 58)
- 박찬호 (문 63)
- 박현영 (치)
- 박혜란 (미 70)
- 박혜옥 (간 69)
- 박호현 (의 52)
- 박흥근 (공 64)
- 박희자 (문 68)
- 방명진 (공 73)
- 방동완 (문 65)
- 백옥자 (문 71)
- 백혜란 (문 70)
- 벤자민 흥 (문 53)
- 서동영 (사 60)
- 서명희 (문 67)
- 서세진 (문 62)
- 서치원 (문 69)
- 선우원근 (공 66)
- 성낙경 (치 63)
- 성준 (의 55)
- 손영수 (문 92)
- 손희석 (문 61)

- 송명국 (문 81)
- 송태진 (문 79)
- 신건호 (법 63)
- 신동국 (수 76)
- 신영찬 (의 62)
- 신정연 (미 61)
- 양승문 (공 65)
- 양승조 (문 70)
- 양은석 (문 70)
- 양태준 (상 56)
- 오길평 (치 61)
- 오선웅 (의 63)
- 오천수 (의 57)
- 오형원 (의 53)
- 유승식 (상 61)
- 원종민 (의 57)
- 위종민 (공 64)
- 유덕영 (공 57)
- 유영자 (문 63)
- 유이중 (문 74)
- 유석환 (치 59)
- 유태식 (의 61)
- 윤경민 (법 55)
- 윤영돈 (법 59)
- 윤석철 (상 60)
- 윤희성 (치 65)
- 이명수 (문 83)
- 이건일 (의 62)
- 이경희 (인 83)
- 이기준 (법 54)
- 이명수 (문 83)
- 이방기 (문 59)
- 이법식 (공 61)
- 이상우 (의 56)
- 이서희 (법 70)
- 이성숙 (공 56)
- 이성호 (간 76)
- 이소희 (의 61)
- 이영수 (공 60)
- 이영일 (문 53)
- 이영환 (간 70)
- 이용한 (공 64)
- 이원택 (의 65)
- 이원익 (문 73)
- 이희상 (사 58)
- 이장길 (치 63)
- 이재권 (법 56)
- 이정근 (사 60)
- 이정남 (공 63)
- 이정화 (공 52)
- 이종모 (간 69)
- 이준호 (상 65)
- 이준희 (공 53)
- 이진영 (의 65)
- 이찬용 (치 72)
- 이창무 (공 54)
- 이창선 (법 57)
- 이창상 (상 61)
- 이체진 (문 55)
- 이태영 (법 60)
- 이해영 (공 56)
- 이호 (문 92)
- 임동규 (미 57)
- 임동호 (의 55)
- 임문빈 (상 58)
- 임석중 (공 50)
- 임환규 (사 72)
- 장기열 (치 55)
- 장기창 (공 56)
- 장대욱 (문 57)
- 장동석 (문 66)
- 장문섭 (공 69)
- 장병희 (인 86)
- 장소현 (미 65)
- 장용오 (의 57)
- 장원경 (미 73)
- 장윤희 (사 54)
- 장인숙 (간 70)
- 장정호 (미 64)
- 장춘호 (공 56)
- 전경배 (의 69)
- 전낙관 (사 60)
- 전범수 (문 71)
- 전상욱 (사 52)
- 전원일 (의 77)
- 정균희 (의 64)
- 정동주 (상 72)
- 정명자 (사 56)
- 정예현 (상 63)
- 정연준 (상 63)
- 정인환 (법 54)
- 정재형 (의 61)
- 정철룡 (의 61)
- 정현진 (간 68)
- 정현민 (문 71)
- 정혜령 (간 72)
- 정황 (공 64)
- 제영혜 (상 71)
- 조경애 (문 64)
- 조동철 (사 68)
- 조선주 (간 69)
- 조영오 (의 57)
- 조재국 (문 67)
- 주선희 (문 66)
- 주정래 (상 65)
- 조창자 (간 61)
- 조태목 (사 60)
- 주정래 (상 65)
- 주훈 (문 69)
- 차승철 (법 54)

- 차중환 (사 54)
- 채규환 (법 69)
- 천원희 (가 71)
- 최복철 (공 70)
- 최영구 (상 61)
- 최영준 (간 69)
- 최영지 (미 62)
- 최인숙 (사 67)
- 임동규 (미 57)
- 한귀희 (미 68)
- 한동수 (의 60)
- 한서동 (의 61)
- 한수호 (상 53)
- 한원민 (의 59)
- 한희일 (공 62)
- 한정희 (치 55)
- 한홍택 (공 60)
- 함승욱 (간 73)
- 현기웅 (문 64)
- 홍동식 (법 64)
- 홍선례 (문 70)
- 홍선일 (공 71)
- 이희만 (간 70)
- 이후우 (공 50)
- 전병삼 (의 54)
- 정동성 (상 58)
- 정인용 (의 71)
- 정화민 (법 55)
- 정호준 (사 61)
- 조남철 (사 59)
- 조대영 (공 61)
- 조득환 (의 61)
- 조병선 (의 65)
- 조중수 (공 64)
- 조태환 (상 56)
- 진봉일 (공 50)
- 차근만 (문 56)
- 최영태 (문 67)
- 최승준 (의 61)
- 최정호 (사 63)
- 최한봉 (문 58)
- 최한용 (문 58)
- 최현무 (법 69)
- 최영우 (문 71)
- 한태진 (의 58)
- 함준규 (간 66)
- 허정호 (의 71)
- 허경일 (의 71)
- 허성현 (의 58)
- 허진영 (사 63)
- 홍정표 (문 67)

- 유호근 (문 73)
- 육순재 (의 63)
- 윤병남 (사 62)
- 윤영섭 (의 57)
- 윤종수 (의 66)
- 윤철 (문 54)
- 윤현남 (공 64)
- 이강욱 (문 70)
- 이대영 (문 64)
- 이명준 (공 72)
- 이문보 (치 76)
- 이상근 (상 84)
- 이상봉 (문 65)
- 이상우 (의 56)
- 이영수 (간 60)
- 이영일 (의 60)
- 이영대 (의 63)
- 이우성 (사 57)
- 이재진 (의 59)
- 이준우 (문 65)
- 이준환 (공 48)
- 이종우 (문 69)
- 이종호 (의 63)
- 이태안 (의 61)
- 이희만 (간 70)
- 이후우 (공 50)
- 전병삼 (의 54)
- 정동성 (상 58)
- 정인용 (의 71)
- 정화민 (법 55)
- 정호준 (사 61)
- 조남철 (사 59)
- 조대영 (공 61)
- 조득환 (의 61)
- 조병선 (의 65)
- 조중수 (공 64)
- 조태환 (상 56)
- 진봉일 (공 50)
- 차근만 (문 56)
- 최영태 (문 67)
- 최승준 (의 61)
- 최정호 (사 63)
- 최한봉 (문 58)
- 최한용 (문 58)
- 최현무 (법 69)
- 최영우 (문 71)
- 한태진 (의 58)
- 함준규 (간 66)
- 허정호 (의 71)
- 허경일 (의 71)
- 허성현 (의 58)
- 허진영 (사 63)
- 홍정표 (문 67)

- 유정식 (문 86)
 - 이창재 (문 56)
 - 주한수 (수 62)
 - 황효숙 (사 65)
- ### 미시간
- 고광국 (공 54)
 - 고선희 (문 63)
 - 김국화 (공 56)
 - 김영호 (의 60)
 - 김우신 (의 60)
 - 김정화 (문 56)
 - 김재석 (의 61)
 - 남성희 (의 56)
 - 민영희 (공 65)
 - 박용화 (의 58)
 - 오동환 (의 65)
 - 오혁주 (사 88)
 - 이성길 (의 65)
 - 장병진 (공 61)
 - 조병권 (공 64)
 - 주영준 (간 64)
 - 최병두 (의 53)
 - 하계현 (공 64)
- ### 북가주
- 강재호 (상 57)
 - 이준수 (문 72)
 - 김성철 (공 82)
 - 김문걸 (사 77)
 - 김정호 (사 55)
 - 김정희 (법 66)
 - 김현왕 (공 64)
 - 남광순 (공 64)
 - 민병근 (문 65)
 - 박서규 (법 59)
 - 박성수 (공 59)
 - 박영훈 (공 72)
 - 박진영 (공 66)
 - 송영훈 (상 57)
 - 신규영 (문 64)
 - 안호삼 (공 58)
 - 윤성희 (사 58)
 - 위창호 (의 67)
 - 이광호 (공 55)
 - 이성원 (공 65)
 - 이성형 (공 57)
 - 이장우 (문 72)
 - 이정남 (공 65)
 - 이창현 (문 56)
 - 이창희 (공 62)
 - 임승배 (문 66)
 - 임정란 (문 76)
 - 전병란 (공 54)
 - 정지선 (상 58)
 - 정준임 (간 67)
 - 정한규 (의 63)
 - 조태목 (사 60)
 - 최경선 (공 65)
 - 한상봉 (수 67)
 - 홍병의 (공 68)
 - 황동하 (의 65)
- ### 샌디에고
- 고경하 (공)
 - 김민철 (의 70)
 - 남정우 (사 56)
 - 이문성 (공 62)
 - 오계환 (공 64)
 - 유현주 (문 65)
 - 윤진희 (의 57)
 - 이문상 (공 62)
 - 이민기 (문 77)
 - 임춘수 (의 57)
 - 진성호 (공 64)
- ### 시카고
- Ja H. Song
 - 강영국 (수 67)
 - 구경희 (의 59)
 - 김길준 (의 59)
 - 김동희 (공 66)
 - 김규호 (의 58)
 - 김영운 (문 65)
 - 김성일 (공 68)
 - 김승주 (간 69)
 - 김영주 (공 69)
 - 김영환 (공 71)
 - 김윤하 (공 66)
 - 김정수 (문 69)
 - 김호범 (상 69)
 - 김현주 (문 61)
 - 노영일 (의 62)
 - 민영기 (문 65)
 - 박동수 (문 58)

- 박정일 (의 61)
 - 박종희 (의 69)
 - 박정욱 (공 56)
 - 백운기 (문 56)
 - 서상현 (의 65)
 - 석혜복 (사 63)
 - 소진문 (치 58)
 - 송재현 (의 45)
 - 신석균 (문 54)
 - 안영학 (문 57)
 - 안신호 (문 61)
 - 연경자 (의 65)
 - 유기정 (간 72)
 - 육길원 (사 59)
 - 윤경순 (사 61)
 - 윤덕상 (치 62)
 - 윤봉수 (간 69)
 - 이경미 (미 69)
 - 이건정 (공 69)
 - 이덕수 (문 58)
 - 이동근 (공 75)
 - 이소희 (간 68)
 - 이승자 (사 60)
 - 이시영 (상 45)
 - 이유락 (공 48)
 - 이우성 (의 51)
 - 이우성 (문 57)
 - 이준수 (문 76)
 - 이종일 (의 65)
 - 장윤필 (공 60)
 - 전연희 (공 69)
 - 전현일 (문 62)
 - 조대현 (공 67)
 - 조중환 (의 63)
 - 최대현 (의 59)
 - 최혜숙 (의 53)
 - 최희수 (문 67)
 - 한희일 (공 62)
 - 이명자 (문 59)
 - 홍건 (의 64)
 - 홍성일 (의 57)
 - 황소나 (사 56)
 - 황치용 (문 65)
- ### 아리조나
- 진명규 (공 70)
- ### 오레곤
- 김영자 (간 56)
 - 박희진 (문 78)
 - 최용성 (의 55)
 - 한국남 (공 57)
 - 한영준 (사 60)
- ### 오하이오
- 명인재 (사 75)
 - 박훈 (공 74)
 - 이우영 (의 57)
 - 유덕영 (공 57)
- ### 워싱턴 DC
- 김길중 (의 69)
 - 고의걸 (의 55)
 - 곽명수 (문 65)
 - 권기현 (사 53)
 - 권철수 (의 68)
 - 권우근 (상 58)
 - 김기봉 (공 63)
 - 김기환 (공 67)
 - 김내도 (공 62)
 - 김부근 (의 58)
 - 김윤호 (사 58)
 - 김윤호 (공 64)
 - 김영환 (치 88)
 - 김혜식 (공 59)
 - 김희수 (의 62)
 - 나훈수 (사 57)
 - 남욱현 (상 84)
 - 남준일 (사 69)
 - 박상일 (법 75)
 - 박인영 (의 69)
 - 박일영 (문 59)
 - 박찬모 (공 54)
 - 박용우 (문 61)
 - 배성호 (의 65)
 - 백순 (법 58)
 - 백용현 (공 64)
 - 서윤석 (의 62)
 - 석균범 (문 61)
 - 신경은 (문 65)
 - 오인환 (공 63)
 - 양용관 (문 62)
 - 유재형 (상 54)
 - 유달 (의 67)
 - 유영선 (인 74)
 - 유영준 (의 74)
 - 이건현 (수 54)
 - 이규양 (문 62)
- ### 캘리포니아
- 이종영 (문 58)
 - 정신호 (사 78)
 - 최희진 (문 85)
- ### 캐롤라이나
- 이종영 (문 58)
 - 정신호 (사 78)
 - 최희진 (문 85)
- ### 테네시
- 권준희 (가 87)
 - 김경덕 (공 75)
 - 서갑식 (공 70)
 - 임효순 (간 71)
- ### 텍사스
- 김장환 (공 81)
 - 유황 (문 56)
 - 윤영주 (문 60)
 - 조진태 (문 57)
 - 전양공 (의 63)
 - 전중희 (공 56)
 - 진기주 (공 60)
 - 최희호 (문 58)
 - 황명규 (공 61)
- ### 플로리다
- 김성준 (의 55)
 - 김종권 (의 63)

- 박창익 (문 64)
 - 안창현 (의 55)
 - 엄태근 (의 56)
 - 오석일 (의 64)
 - 원인수 (문 71)
 - 이민우 (의 67)
 - 이만택 (의 52)
 - 정의철 (의 55)
 - 하재청 (문 67)
- ###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 55)
 - 김준철 (사 59)
 - 김경희 (가 71)
 - 김국간 (치 64)
 - 김규화 (상 63)
 - 김상현 (문 64)
 - 김정영 (문 58)
 - 김현영 (수 58)
 - 손재욱 (가 77)
 - 송성균 (공 50)
 - 서의원 (문 66)
 - 서준민 (공 64)
 - 성기호 (상 59)
 - 성정호 (의 57)
 - 신선자 (사 60)
 - 심영석 (공 76)
 - 안세현 (의 62)
 - 엄종렬 (미 61)
 - 유진석 (치 56)
 - 유영걸 (의 70)
 - 윤경수 (문 59)
 - 윤정나 (문 57)
 - 이규호 (문 56)
 - 이문호 (공 53)
 - 이성수 (상 74)
 - 이수경 (사 81)
 - 이지춘 (미 57)
 - 이희일 (문 70)
 - 장학량 (의 56)
 - 조화연 (문 64)
 - 정우식 (공 61)
 - 전남남 (상 73)
 - 정덕순 (상 63)
 - 정학량 (의 56)
 - 정택택 (상 61)
 - 조정현 (수 58)
 - 주기목 (수 68)
 - 지홍민 (수 61)
 - 최종무 (상 63)
 - 최현태 (문 62)
 - 한동희 (문 57)
 - 한수웅 (의 55)
 - 한우용 (보 70)
- ### 하와이
- 김달욱 (사 55)
 - 김윤수 (문 75)
 - 김용근 (공 63)
 - 안은식 (문 55)
 - 이재형 (수 61)
 - 최경윤 (사 51)
 - 하인환 (공 56)
- ### 하트랜드
- 김경숙 (가 70)
 - 김재영 (공 64)
 - 김태찬 (문 80)
 - 김시근 (공 72)
 - 배규영 (사 68)
 - 오명순 (상 69)
 - 이광자 (간 63)
 - 이상강 (의 70)
 - 이주현 (미 92)
 - 이치현 (의 77)
 - 임소연 (문 91)
 - 정민재 (문 71)
 - 조원지 (문 63)
 - 호민선 (상 59)
- ### 휴스턴
- 김영일 (의 55)
 - 박석규 (간 59)
 - 박유미 (의 62)
 - 박태우 (공 64)
 - 이길영 (문 59)
 - 이윤성 (수 81)
 - 이은애 (문 81)
 - 이학호 (수 59)
 - 진기주 (상 60)
 - 최관일 (공 54)
 - 최성호 (문 58)
 - 최용천 (의 53)
- ### 룩키마운틴스
- 송요준 (의 64)
 - 전남일 (사 72)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5.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동석 (음 64)	100
김병연 (공 68)	500
김성환 (의 65)	300
노진걸 (사 70)	200
송영두 (공 59)	200
박우선 (공 57)	300
박중수 (수 58)	17,000
박하영 (치)	100
백만일 (공 64)	200
백옥자 (음 71)	200
벤자민 홍 (문 53)	1,000
손기용 (의 55)	200
양은석 (음 70)	500
양승문 (공 65)	200
이범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이영일 (문 53)	10,000
이재진 (문 55)	200
임낙균 (약 64)	21,000
전상욱 (사 52)	1,000
정균희 (의 64)	200
한귀희 (미 68)	50
한정현 (치 55)	500
황만익 (사 59)	200
황현상 (의 55)	100
H & Y Lee	1,000
뉴욕	
곽선섭 (공 61)	400
신응남 (농 70)	700
김광현 (미 57)	200
김보영 (간 69)	50
김해민 (의 52)	100
리준우 (공 65)	400
문석면 (의 52)	200
우용환	1,000
윤철 (문 54)	200
이준형 (공 48)	1,000
조남천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허선행 (의 58)	2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2,000
주창준 (의)	400
박종승 (의 56)	200
네바다	
김상순 (상 67)	2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500
워싱턴DC	
강길중 (약 5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1,000
민홍기 (문 61)	1,000
서윤석 (의 62)	200
박평일 (농 69)	4,000
백순(법 58)	100
정평희 (공 71)	200
최재귀 (미 63)	1,000
시카고	
강영국 (수 67)	200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200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1,500
황효숙 (사 65)	2,000
조지아	
이종석 (의 54)	200
성성모 (사 67)	200
최종진 (의 63)	500
한성수 (의 54)	200

커네티컷	
최창승 (의 58)	200
테네시	
김경덕 (공 75)	200
텍사스	
황명규 (공 61)	400
필라델피아	
(고)전희근 (의 55)	2,000
최창승 (의 52)	500
서종민 (공 64)	200
손재욱 (가 77)	500
이순희 (사)	300
플로리다	
김중권 (의 63)	400
오석일 (의 64)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2,000
하와이	
(고) 전영표 (문 55)	1,000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 81)	480
정균희 (의 64)	240
정재훈 (공 64)	720
하기환 (공 66)	480
김경무 (공 69)	480
김원탁 (공 65)	480
김일영 (의 65)	480
김자성 (의 79)	240
서동영 (사 60)	480
신동국 (수 76)	480
아주투어	500
이경희 (인 83)	480
이병준 (상 55)	240
이상대 (농 80)	240
이승훈 (상 74)	240
이중표 (간 69)	480
이태영 (법 60)	480
최우식(약 66)	480
뉴욕	
김승호 (공 71)	240
김치갑 (의 73)	480
박종호 (의 79)	240
신응남 (농 70)	480
석창호 (의 66)	240
이전구 (농 60)	240
오레곤	
박희진 (농 78)	48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4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 (공 53)	300
홍성선 (약 72)	100
이건일 (의 62)	100
뉴욕	
선종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400
시카고	
김현주 (문 61)	1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강길중 (약 69)	500
테네시	
권준희 (가 87)	15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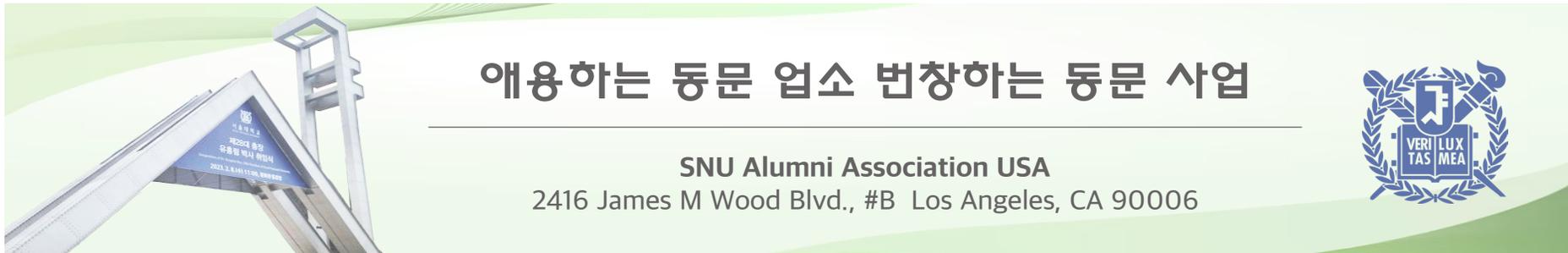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200
미네소타	
황효숙 (사 65)	500
시카고	
한재은 (의 59)	300
워싱턴 DC	
오인환 (문 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나눔기금	
남가주	
주선희 (문 66)	50
뉴욕	
조태환 (상 56)	100
신응남 (농 70)	300
펜실베이니아	
신익석 (공 53)	5,0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SNUAA Scholar Program	
(본국)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김중섭 총동창회 회장 (상 65)	10,000
남가주	
노명호 (공 61)	10,000
미시간	
고광국 (공 54)/	200,000
고국학 (공 56)	24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
시카고	
이용락 (공 48)	3,0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김양희 (음 77)	1,400
김자성 (의 79)	1,500
류원 (대학원 74)	1,500
미주재단	26,000
박수경 (생 84)	6,3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경희 (인 83)	300
이병준 (상 55)	3,000
하기환 (공 66)	2,500
홍훈정 (음 70)	300
뉴욕	
김승호 (공 71)	1,500
이전구 (농 60)	3,0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 (공 57)	30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미네소타	
황효숙 (사 65)	500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워싱턴 DC	
권기현 (사 53)	300
권철수 (의 68)	100
최재귀 (미 63)	200
한광수 (의 57)	3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인명록비	
뉴욕	
신응남 (인명록 책값)	50
관악연대 활성화 보조 후원금 (23-24년)	
뉴잉글랜드	
최민진 (공 71)	2,500
휴스턴	
김정환 (공 80)	2,500
관악연대 활성화 보조 후원금 (24-25년)	
북가주	
김범섭 (공 79)	2,500
뉴잉글랜드	
최민진 (공 71)	2,500
시카고	
조규승 (문 72)	2,500
조지아	
최화진 (음 86)	2,500
나눔 장학금 보조금	
워싱턴 DC	
박종희 (의 69/세종문화회)	3,000
필라델피아	
서종민 (공 64/정직장학금)	2,000
지부 장학금 후원 (23-24년)	
미시간	
이광진 (공 81)	2,000
미네소타	
윤정식 (농 86)	2,000
뉴욕	
김정필 (공 71)	2,500
뉴잉글랜드	
최민진 (공 71)	2,000
벤쿠버	
성영주 (간 86)	2,000
워싱턴주	
임현민 (공 84)	2,000
워싱턴 DC	
정세근 (자 82)	2,000
샌디에고	
송오석 (공 91)	2,000
하트랜드	
임소연 (음 91)	2,000
휴스턴	
김정환 (공 80)	2,000
지부 장학금 후원 (24-25년)	
뉴잉글랜드	
최민진 (공 71)	2,000
미시간	
이광진 (공 81)	2,000
북가주	
김범섭 (공 79)	2,000
북텍사스	
이선애 (경 85)	2,000
샌디에고	
박상호 (치 80)	2,000
시카고	
조규승 (문 72)	2,000

워싱턴주	
임현민 (공 84)	2,000
조지아	
최화진 (음 86)	1,000
커네티컷	
박성훈 (자 91)	2,000
필라델피아	
심희진 (음 90)	2,000
하트랜드	
이주현 (미 92)	2,000
휴스턴	
김정환 (공 80)	2,000
지부분담금 (23-24년)	
남가주	
임춘택 (상 68)	3,000
북가주	
최경선 (농 65)	1,300
뉴욕	
연영재 (공 74)	3,000
뉴잉글랜드	
최민진 (공 71)	1,000
북텍사스	
이선애 (경 85)	550
록키마운틴스	
최문기 (공 73)	200
미네소타	
윤정식 (농 86)	550
샌디에고	
송오석 (공 91)	550
시카고	
조규승 (문 72)	2,400
애리조나	
정인주 (농 82)	200
오레곤	
박희진 (농 78)	300
오하이오	
이성우 (상 72)	300
워싱턴 DC	
정세근 (자 82)	2,000
워싱턴주	
임현민 (공 84)	800
조지아	
배혜영 (음 79)	800
캐롤라이나	
정신호 (자 78)	200
필라델피아	
심희진 (음 90)	1,000
플로리다	
윤기향 (법 65)	300
하와이	
성낙길 (문 77)	300
하트랜드	
임소연 (음 91)	550
휴스턴	
김정환 (공 80)	550

지부분담금 (24-25년)	
남가주	
채규환 (법 69)	3,000
북가주	
김범섭 (공 79)	1,300
뉴욕	
김정필 (공 71)	3,000
뉴잉글랜드	
최민진 (공 71)	1,000
북텍사스	
이선애 (경 85)	550
미네소타	
문성인 (공 88)	550
미시간	
이광진 (공 81)	300
샌디에고	
박상호 (치 80)	550
시카고	
정성일 (공 86)	2,400
워싱턴 DC	
남옥현 (상 84)	2,000
워싱턴주	
이정관 (농 83)	800
조지아	
최화진 (음 86)	800
커네티컷	
박성훈 (자 91)	300
필라델피아	
심희진 (음 90)	1,000
하트랜드	
이주현 (미 92)	550
휴스턴	
김정환 (공 80)	550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시는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 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292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900-1000	
4184 E. Conant St., Long Beach, CA 90808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모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t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Law Offices E. PETER SHIN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120 Sylvan Ave #303,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박중호 소아과	
박중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Seoul Korea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t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H1C(Health 1 Care) / 김창석내과
김창석 (의대 73)
T: 770-497-4188
10710 Medlock Bridge Rd, Ste 200, Johns Creek, GA 30097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텍사스
UNIFAITH Co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뉴잉글랜드

URI
이강원 (공대 66)
T: 401-874-2695
2 E. Alumni Ave. Kingston, RI 02881
leekw@uri.edu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O이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2024/7~2025/6, 1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2024/6월, 1년/1차) <input type="checkbox"/> \$240 (2024/7월~2025/6월, 1년/2차)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input type="checkbox"/> SNUAA Scholars Program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관악연대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Color \$400	<input type="checkbox"/> \$500 (1년)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이영일(문) 이채진(문) 박중수(수)
박창규(약) 이홍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종(농)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효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지),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국장 : 나용화(생)/위원: 최경석(사), 박문수(공)
Database 국장: 장병희(문)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백옥자(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택택(공)

위원: 고 김영구(공), 신응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문성인(공)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나눔위원회

위원장: 이성숙(가)

위원: 정태광(공), 유미영(음)

감사: 박평일(농)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5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채규황**(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차기 회장 **양수진**(간호대 80) T: (714)335-2148
sujinyang2011@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pkim@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박상호(치대 80) T: (516)776-0449
nomacast@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 83) T: (425)998-4150
jklee234@yahoo.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5)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룩키타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hok@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송태영(자연대 84)
T: (778)866-8312
chris.van.bc@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uon@hot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 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차기 회장 **이동균**(공대 75) T: (847)644-4807
dlee1917@yahoo.com

뉴욕 NY/NJ (July~Jun)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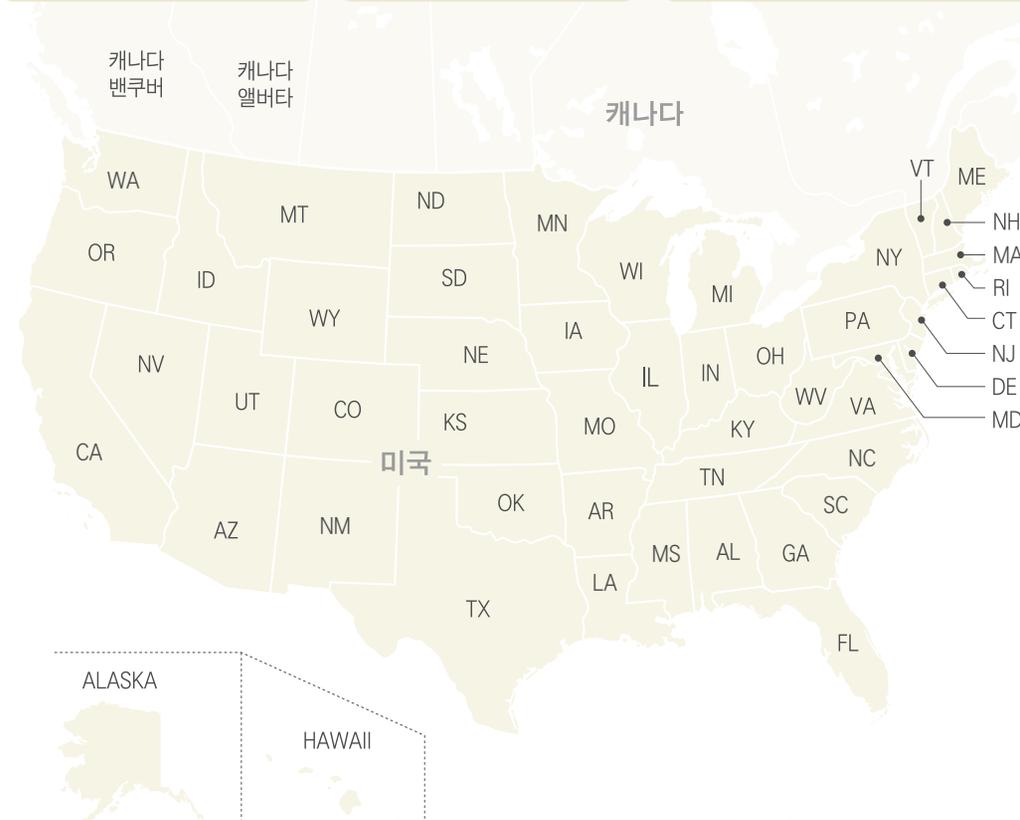
남옥현(경영대 84)
T: (703)898-6429
minamusa@yahoo.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 85)
T: (828)242-7150
hwajinkimdma@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주현(미대 92)
T: (913)220-3021
June.ch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m@alum.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www.duoamerica.net



듀오서머 스피드이벤트

2025년 8월 2일 (토) 4:30~8:00 PM

LA:213-383-2525 (Jenny Kim)

박수경 (소비자학과 84)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SR WINDOW LLC
901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C. 213-700-4119 / O. 323-232-1700 Fax 323-232-4700

최고급 이중창문 3/4 DUAL GLASS
이중유리에 들어가는 Spacer, Screen Frame, Insulated Silicone 등 모든 부속은 미국 최대 Hardware maker인 C.R. Laurence Co. 제품입니다. SR의 PROFILE은 한국 LG 화학이 개발한 무공해 첨단소재를 사용했고 PATIO DOOR의 PROFILE은 독일제.

WINDOW PRODUCTION PERSONNEL WILL INSTALL IT. IT ALSO SOLVES SENSITIVE AND DELICATE PARTS. 윈도우 제작 직원들이 설치합니다, 사공에도 섬세한 손길이 중요합니다.



J.S. LEE / SUPERVISOR / TECHNICAL COLLEGE OF HANYANG UNIV. KOREA, EXCELLENT TECHNOLOGY EVALUATION AWARD(NICE) 한양공대/NICE 선정 최우수 기술평가



JUAN SUAREZ / MANAGER / 20 YEARS EXPERIENCED WINDOW PRODUCT



WON RYU / CEO / PH.D / FORMER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FOUNDED SR WINDOW 199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유원(대학원 · 언론정보 74)

최고급 이중창문
1999.00
BIG SALE
10 WINDOWS

DUAL GLASS / VINYL FRAME
STANDARD SIZE / TOP QUALITY

LIFETIME WARRANTY
한인최초의 창문제조공장
NFRC MEMBER (APPLIED FOR CERTIFICATION)



'윈도우'를 바꾸면 '마음의 창'도 열립니다

Window tells your personality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Byung Joon Lee

이병준 (상대 55)

